

김경숙 열사 40주기 기념 심포지엄 '여공', 기억에서 역사로

2019. 10. 30. Wed. 2 pm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니콜라오희

주최



한국여성노동자회 •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후원



여성가족부



| 사회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여공' 기억에서 역사로

〈연구 노트〉

젠더 관점으로 본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
: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김상숙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p.9

2019년 YH 여성노동자 김경숙을 다시 생각하다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p.35

| 토 론

토론문

유정순 한국여성노동자 연구활동가

p.59

오늘 우리에게 김경숙은 누구인가?

정영훈 (사)한국여성연구소 소장

p.65

YH사건 이후 40년,

여성노동운동의 '역량'을 평가하는 시선에 대하여

서아현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p.73

70년대의 김경숙, 40년을 넘어오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p.87

| 자유 토론

다함께

기억에서 역사로!

최순영 · 이철순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공동대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여공’으로 불려 왔던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은 교육받지 못한 가녀린 시대의 희생양으로 묘사됩니다. 단결된 힘으로 똘똘 뭉쳐 노동운동을 했지만 그 역사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 했습니다. 그저 80년대 남성중심 노동운동이 있기 전 전사 정도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를 살았던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역사적 기술의 심각한 문제를 깨닫습니다.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은 교육의 기회를 남동생과 오빠에게 빼앗기고 돈을 벌기 위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착취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 야학을 만든 열혈 학생이었고, 지역경제를 쥐락펴락하는 큰 손이었으며, 민주노조를 만들고 여성지부장을 세워낸 시대의 선각자였습니다. 집안에서는 책임감 높은 생계부양자였으며 개인 노동자 의식으로 유신독재에 항거했고, 노동조합 안에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한 민주시민이었습니다. 페미니즘이란 이름은 몰랐지만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강화하였고 여성 리더십 양성에 조직 전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동일방직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지부장 선출로 민주노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 똥물세레에도 굳건히 버티어 냈습니다. 콘트롤데이터 여성노동자들은 결혼 퇴직 첼페 투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원풍모방 노동자들은 군사독재에 끊임없이 저항했던 당시 민주노조운동의 교과서로 기록됩니다. 엄혹한 70년대 유신체제 아래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들은 노동자가 유일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YH 여성노동자들은 회사가 폐업한 과정과 사회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 유신독재에 파열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YH노동조합은 최후로

투옥까지 감안하고 “왕창 깨지는 싸움을 하자.”는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조직된 힘과 동지들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결정 과정은 매우 놀랍게도 전 조합원의 토론을 거쳐 만들어 낸 결론이었습니다. YH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산 민주주의 교육장으로 올곧게 만들어 내었습니다.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과 밑으로부터 수렴된 의견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였고 지도부를 중심으로 강한 단결력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신민당사로 가자는 결정 과정도 후보지를 조합원들에게 받아 하나하나 검토하고 실제 협상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 나갔습니다. 이 놀라운 투쟁을 그동안 역사는 제대로 기록하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YH노동자들의 투쟁은 유신독재를 몰락시킨 도화선이 아니라 유신독재를 몰락시킨 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기억을 역사의 반열로 올리고자 합니다. 여성의 노동처럼 저평가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제대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역사를 만들어갔던 여성노동자들에게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2019. 10. 30

노동자의 죽음으로 열리고 닫혔던 70년대, 그 안에서 함께했던 우리

신인령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경숙 열사 40주기 행사에서 축사를 사양하지 못한 것은 'YH와 나의 70년대' 뜨거웠던 관계 때문입니다. 그 시대를 상기하면서 김경숙을 보낸 우리들의 아픔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는 79년 김경숙 열사를 잃고만 그 치열했던 YH노조의 마지막 투쟁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몸서리치는 고통과 함께 신비한 역사를 이루어 낸 현장을 저는 전해 듣고 공부하며 비로소 느껴야 했습니다.

YH노조와 제가 만난 것은 YH노조가 어렵게 결성된 초창기였습니다. 이후 우리는 연애하듯 좋아하며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70년대를 살았습니다. 유신억압체제 속에서도 지혜롭게 무럭무럭 자라던 YH노조가 79년 들어 회사의 폐업공고(3월30일)에 맞서 회사정상화투쟁으로 고군분투하게 되었습니다. 끈질긴 싸움의 막바지에 조합원 약 200여명이 신민당사에 들어가(그해 8월9일 아침) 결사투쟁을 하다가 이틀 만에 캄캄한 새벽(8월11일),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며 끌려 나왔고 그 과정에서 김경숙(당시 노조 조직부차장)을 잃었던 것입니다. 결국 노조도 풍지박살 나고요.

하필 이 역사적인 'YH 79년'을 저는 함께 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79년 3월13일 남산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한 달 가까이 당하고 있을 때 저 때문에 최순영 지부장도 (다른 노조 여성간부들과 함께) 그곳에 끌려와 2박3일 간 고문당하며 시달렸습니다. 그 후 저는 80년 1월까지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어서 YH의 그 참혹한 마지막 싸움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10.26 전까지는 YH사건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고 경숙의 죽음은 출소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YH노조의 첫 만남은 크리스찬아카데미의 노동교육에서입니다. 저는 70년대 10여 년 간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노조간부의 지도력개발과정’(1차교육, 4박5일)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노조는 어용노조, 여성단체는 어용여성단체가 주로 지배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어떻게 이 절벽을 뚫어낼 것인가, 어떻게 어용노조를 극복하고 민주노조를 세울 것인가를 노심초사하며 운영하던 교육사업이었지요.

YH노조는 신생노조로 아직 어용도 민주도 아닌 조합원 대다수가 나이 어린 여공들이고 생기발랄한 노조였습니다. 간부들도 순박하기 그지없고 교육의 모든 과정을 마치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반짝였습니다. 1차교육 시행한 후 6개월~1년 후 실시하는 재교육인 ‘민주노조의 좌표설정과정’(2차교육 5박6일)에 참여한 이 신생노조의 여성간부들은 눈부신 운동가로 성장하여 나뒀습니다. 거기서 최순영·박태연·권순갑 같은 열정적인 간부들을 만나 이후 지금까지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따듯합니다.

YH노조의 어린 여공 김경숙은 영민하여 YH에 입사한지 얼마 안지나 노조의 대의원이 되고 조직부차장이 되어 열심히 조직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비상근 임원이어서 4박5일간의 교육휴가를 얻을 수 없어 아카데미가 마련한 주말 단축교육과정(2박3일)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제가 YH노조 자체교육에 가서도 만난 열성조합원이었습니다. 김경숙을 기록한 책자에서 보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난한 가족을 도우려고 이 공장 저 공장 떠돌며 휴식이 뭔지 모르고 몸이 부서지도록 노동만 하던 소녀가, 노조가 있는 큰 공장 YH에 입사하여 비로소 새로운 삶의 꿈을 꾸게 된 일, 여름휴가까지 있어서 노조의 교육수련회 겸 휴가로 갔던 경포대모임 등을 꿈같이 행복해 했다는 이야기를 읽으며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 경포대교육에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고향의 엄마와 남동생을 돌보며 보람찬 노조활동에 몸담고 야학으로 자기성장을 꾀하던 김경숙의 YH시절은 겨우 3년간이었습니다! 심지가 굳고 운동가로 잘 성장하던 김경숙 열사가 살아서 계속 활동하고 있었다면 지금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니 다시 아픕니다.

경숙은 이 나라 민주주의역사에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노동자의 관점에서 보면 ‘암울했던 70년대는 노동자의 죽음으로 열리고 노동자의 죽음으로 닫혔다’고 함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열사를 위한 새 ‘기억의 정치’

정현백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김경숙 열사가 떠난 지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김경숙 열사의 죽음을 우리 모두 슬퍼하였지만, 그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은 박정희 군부독재의 퇴진과 한국의 민주화의 발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이들이 김경숙 열사를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매년 여성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추모제와 묘소 방문을 통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의 문화는 이미 우리 여성노동자들 안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40주기를 맞이하면서, 저는 다시 스스로를 반성해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김경숙 열사를 잘 기억하고, 그 죽음에 값하는 기념을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그녀를 기억하고, 그 죽음이 혹독한 군부독재의 시기를 떠나보내는 역할을 했던 점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제프리 올릭은 “단순한 기념은 망각만큼이나 위험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기억문화와 기념행위가 형식적이면서 의례화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김경숙 열사의 죽음과 그 의미에 대한 감동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김경숙 열사의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성노동자의 역사, 한국현대여성사의 역사 속에서만이 아니라, 전체 한국현대사와 민주화운동사속에서 김경숙 열사의 죽음이 지니는 의미와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뿐 만 아니라 여성노동자운동이 한국현대사에서 지니는 의미를 좀 더 부각해야 하겠습니다.

‘기억의 정치’나 기념문화는 더 이상 과거를 회고하는 것에 머물거나 그 사

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회고나 기억에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시민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게 우리 세대의 삶과 민주주의와 평등을 향한 투쟁의 역사를 알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지금 청년세대가 겪는 불평등이나 고통과 함께 안고가야 합니다. 이제 ‘기억의 정치’나 기념문화는 역사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우리 시대의 열망과 비전을 미래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심포지엄이 이런 희망적인 과업을 완성하기 위한 초석이 되기 바랍니다.

이 행사를 준비한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여성노조 회원들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연구 노트>

젠더 관점으로 본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
: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김상숙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연구 노트〉

젠더 관점으로 본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
: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김상숙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1.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김경숙 열사 40주기를 맞아 그의 삶을 되새기며,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을 젠더 관점에서 되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여성 주도 주요 민주노조의 활동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자운동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1970년대는 박정희 군부 정권에 의해 근대화의 이름으로 국가 주도 경제개발이 진행되던 시기이고 동시에 냉전반공체제가 강화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성장과 이윤 추구를 위해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를 유지하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각종 규제와 탄압이 횡행했다. 국가 주의를 앞세워 노동자의 일상을 통제하고 국가가 가부장적 주체가 되어 젠더적 측면에서 규율과 통제를 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기에 터져 나오던 노동자들의 운동은 군부 정권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 것이었고,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은 사회의 기층에서 국가기업·가족에 의해 차별받던 존재들의 자주성이 표출된 것이었다. 1970년대에는 해방 직후 전평운동이 한국전쟁기를 거치며 소멸된 후, 4·19 이후 잠시 나타났다가 파괴된 민주노조운동이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국가와 기업으로부터의 자주성을 요구하는 민주노조운동에 가장 선두에서 앞장선 이들이 여성노동자들이었고, 이들의 투쟁은 결국 유신체제에 파열구를 냈고 19년 장기 집권했던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은 그 의미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

했다. 물론 1970년대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결과는 많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우선 물성적인 것이 많았다. 이러한 연구들(김금수, 1986; 장명국·이경숙, 1988; 신광영·김현희, 1996 등)에 의해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은 경제주의적이고 조합주의적인 한계를 가진 운동으로 비판받았고 1980년대 운동과 단절된 운동으로 평가되기도 했다(김경일, 2005, 153). 또한, 여성노동자를 노동계급이 아니라거나 혹은 ‘비정치적-비자율적’으로 보았던 이러한 관점을 비판하고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의의를 재평가한 경우(구해근, 2002)에도 여전히 여성노동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보면서, 당시 운동에서 교회단체와 지식인 활동가의 역할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남성 주도성을 강조하면서 계급 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관점을 보였다.¹⁾

한편, 이러한 연구들이 남성주의적 관점을 지녔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러한 관점에 의한 연구(김현미, 1999; 전순옥, 2003; 강남식, 2004; 김경일, 2005; 김무용, 2005; 김원, 2005; 유경순, 2005; 이광욱, 2005)가 집중적으로 나온 뒤, 2010년 이후 10년 동안은 몇몇 연구자의 연구(김무용, 2011; 한명희, 2011; 박원일, 2012; 신순애, 2012a; 신순애, 2012b; 유경순, 2011; 유경순, 2017a; 유경순, 2017b; 김원, 2019; 서아현, 2019 등) 외에는 젠더적 관점에서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을 분석한 연구는 그다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이 일어난 지 40~5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이를 여성주의적 측면에서 되짚어보고 재해석하는 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고, 여성노동자운동의 상황을 개관한 뒤 그 특징을 여성 주도 민주노조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노동자운동이 민주노조운동과 등치되는 것은 아니며, 민주노조운동이라는 범주에 묶이지 않은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이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사람으로 남고 기록으로 남아 계승되고 있는, 당시 운동의 핵심적 측면을 파악하고자 여성 주도 민주노조운동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필자에게 배정된 주제에 비해 다뤄야 할 내용이 방대하여 이를 짧은 글에 체계적으로 다 다룰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연구 노트 수준

1) 유경순은 지식인 남성뿐 아니라 청계피복노조의 활동을 분석하면서 남성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을 보호 대상으로만 보는 전태일의 ‘오빠’ 정신 속에 내재한 가부장적 보수성을 비판했다(유경순, 2017b).

으로 기존 연구 자료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요한 토픽들을 재해석하는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2.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배경

: 여성노동자의 지위와 여성노동의 조건

1970년대는 3선 개헌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종신 집권을 위해 1972년 10월에는 유신체제를 수립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의 출범과 함께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하였고 동시에 노동운동에 대한 통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여, 노동계급을 경제성장에 최대한 동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계급의 의식화, 조직화, 정치화를 억압하는 이중적 노동통제 전략을 추구했다(최장집, 1985). 즉, 노동3권의 핵심인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개악하고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강화했다. 노조 활동을 단체교섭권이 없는 노사협의제로 대체하고 한국노총 상층부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한편, 경찰과 중앙정보부를 통해 노동운동을 직접 억압하고 통제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집단행동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결성조차도 쉽지 않았다.

1970년대는 국가의 이러한 정치적·제도적 노동 통제와 함께, 국가기업·가족이 공모한 가부장제의 실현, 이를 바탕으로 한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과 노동과정 통제 속에 성별 임금격차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전략이 실행되었던 시기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경제구조와 노동시장의 특징

1970년대 노동운동이 전개된 배경으로 경제구조와 노동시장의 특징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0년대는 제3·4차 경제개발계획(1972~1981)을 통해 1960년대부터 시행된 국가의 수출주도 정책이 본격화하던 시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주도 정책은 1970년대 중반부터는 중화학공업화를 추구하기는 했으나 섬유와 전자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경아는 Seguino의 자료를 통해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수출주도형 공업화 과정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경제성장의 지렛대로 활용되었으며, 특히 한국

은 성별 임금격차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상품의 단가를 낮추고 성장과 투자를 촉진한 국가임을 역설한 바 있다. 그가 인용한 Seguino의 자료를 보면 1965년부터 1991년 사이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연평균 GNP 성장률은 6.5%이며 그중 한국은 7.3%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한편, 1975년부터 1995년 사이 한국은 전체 노동력 중 여성 비중이 35.3%에서 40.5%로 증가했고 제조업 노동력 중 여성 비중은 34.2%에서 40.0%로 늘었으며, 수출산업 부문 여성 비중은 50%~70%를 상회했다. 그리고 이 시기 성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한국은 남성 대비 여성임금 비중이 평균 48.5%로 동아시아 9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즉,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GDP 성장률을 가장 높았던 반면, 성별 임금격차는 가장 높았고 제조업 내 여성 소득 비중이 가장 낮았다(Sequino, 2000a; Sequino, 2000b; 신경아, 2018, 88~93).

위의 연구에 의하면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중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큰 국가일수록 성장 속도가 빨랐던 경향이 있다. Seguino는 이처럼 성별 임금불평등을 토대로 한 경제성장 전략은 거시적으로도 중요한 사회적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즉, 여성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내면화해 온 성차별적 규범에 따라 저임금과 낮은 위치를 감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는 수출 주도 경제성장에 필요한 저임금 전략의 대상으로 선택했고, 여성들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 갈등을 막는 효과도 가져왔다는 것이다(Sequino, 2000b; 신경아, 2018, 93). 이는 다시 말하면, 급속한 경제성장의 시기에 나타나는 계급 갈등을 무마하고 완화하는 데 성 불평등이 이용되었으며 그 사회적 부담은 여성에게 전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정치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체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임노동을 통해 봉건제의 경제외적 강제를 극복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지만, 자본주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이 주로 전담하는 무급 가사노동과 같은 ‘그림자 노동’을 기반으로 노동력 재생산이 유지되는 사회이며(미셸 바렛, 1995), 성별 임금격차 전략은 이것을 노동시장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은 국가와 기업에 의해서만 추동된 것은 아니었다. 가족 안에서 여성에 대한 성 차별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적 교육자원 배분은 여성노동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국가의 공교육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당시 한국사회의 빈곤 가정 부모들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원을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

라 농촌지역이나 도시의 빈곤 가정에서는 여성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가정의 가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족 생계비나 남자 형제의 학비를 벌기 위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여성에 대한 가족의 성 차별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적 교육자원 배분에 따라 10대~20대 초반의 나이에 남성에게 비해 3~6년 정도 더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군이 형성되었고 이는 미혼 여성 노동력 중심의 저임금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바탕이 되었다. 특히 1977년 정부가 산업체 학교 제도를 시행한 이래, 한국사회에는 국가와 가족으로부터 지원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학업을 위해 다른 노동자들보다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했다가 산업체 학교 졸업 후 이직하는 여성 청소년 노동자 군이라는 독특한 노동자 군이 형성되었다(Chung, Jinjoo, 1997, 52~55). 산업체 학교 진학은 도시 빈민층이나 농어촌 가정 자녀(특히 딸) 교육에 중요한 방식이었으므로 이 제도는 경공업 부문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김상숙, 2018b, 112).

이에 따라 같은 여성 노동력 중심 사업장이라도 전자공장과 봉제공장 여성 노동자의 사회인구학적 구성은 달랐다(Jung, 1997, 46~49). 즉, 한국의 여성 노동력 중심 사업장은 1970년대부터 전자와 섬유로 양분되면서, 여성노동자들도 1군 노동자(전자산업 및 대기업에 종사하는 20대, 고졸 중심)와 2군 노동자(섬유산업 및 중소영세기업에 종사하는 10대 및 불특정 연령대, 중졸 이하 중심)로 나뉘었으며, 이 두 집단의 노동자들은 의식과 생활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노동경로 및 생애사적 경험도 차이가 있었다.

2) 공적 영역의 가부장제 : 노동과정에서의 젠더 통제²⁾

여성 노동력이 중심이 되는 대부분 작업장에는 남성노동자가 상위에서 관

2) 조옥라는 사회의 가부장적 구조와 전통이 작업장에서 여성노동자 노동통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했다(조옥라, 1994). 조순경은 가부장적 통제와는 구별되는 성적 통제(control of sexuality)를 개념화하고, 여성 작업장에서 일어났던 성폭행 사례들을 분석하여 성(sexuality)을 이용한 통제가 이직 방지 및 노동운동 억제 수단으로 사용되어왔음을 밝혔다(조순경 외, 1989). 그리고 필자는 여성노동자에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행해지는 통제 전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가부장적 통제'나 '성적 통제'보다는 '젠더 통제'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노동통제론에서 '가부장적 통제'란 용어는 주로 일본식 노사협조주의 등 아시아에서 유교 문화에 기반을 둔 노동통제라는 의미로 사용하므로 여성노동자에게 특수하게 적용되는 노동통제 방식과 구별되지 않으며, '성적 통제'란 성(sexuality)을 이용한 통제 이외의 여성 노동 통제방식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김상숙, 2007: 36).

라·감독자로 일하고 여성노동자는 말단 생산직에서 일하는 형태로 노동조직이 편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계질서의 말단에 있는 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자본으로부터 직접 통제를 받기보다는 소수 남성노동자들의 통제를 받는다. 이런 현상은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노동에 대해 보편적이었을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는 흔했는데, 1970년대 노동 현장에서도 여성노동자 통제의 주요 전략으로 나타났다. 여성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 남성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불리한 작업조건을 감수하며 일하면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가 거의 허용되지 않는 임시 노동력이자 남성 보조인으로 인식되었고, 직위 상 자신의 상사인 남성노동자의 욕설, 구타, 성폭력 등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구지역에서 과거 섬유업체에서 일했던 남성노동자 중 필자가 만난 구술자들은 “당시 작은 기업 여성노동자의 지위는 종이나 하녀나 마찬가지”였고, 여성노동자가 다수인 작업장에서 남성노동자는 “일종의 왕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작업장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김상숙, 2018a, 172~173).

또한 여성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산업의 기술적 특성이나 기업규모의 차이에 따라 성별 분업과 성별 위계구조의 양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작업장 젠더 통제의 형태와 강도도 다르게 나타났다(김상숙, 2007: 71~72). 섬유산업을 사례로 보면, 섬유산업의 여러 부문 중에서도 고가의 기계 설비가 필요해 대기업에서 주로 운영했던 방직 부문에서는 남성 관리자가 여성노동자들을 통제하긴 했으나, 생산직 남녀 노동자들은 업무가 독립되어 있어 그 관계도 상대적으로 덜 위계적이었다. 둘째, 봉제 부문 작업장은 소수의 남성 재단사와 재단사 보조, 다수의 여성 미싱사와 미싱사 보조(시다)로 구성되어 있고, 재단사와 미싱사 사이에 위계가 있다. 1970년대 서울지역 봉제공장에 대한 김경희의 연구에 의하면, 봉제부문에서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통제는 남성 관리자들의 단순 인격적 통제를 통해 이뤄졌으나, 실제 작업속도는 여성노동자 내부에 A, B, C급으로 나뉘는 숙련 미싱사와 시다의 위계를 기초로 조절되었다(김경희, 2005: 220~221). 셋째, 염색·가공 부문은 작업장에 남성노동자의 수가 많았고, 작업장에 있는 소수의 여성노동자들은 섬유산업의 다른 부문보다 지위가 낮은 편이었다. 넷째, 제직(직포) 부문에서는 여러 대의 기계 사이에서 작업자가 분산되어 일하는 노동 성격 때문에 기계 작동자인 여성들은 작업장 안에서 다른 작업자와 긴밀하게 교류할 여지가 적은 반면, 자신이 맡은 기계의 관리자인 남성노동자와 접촉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기

계 수리 기술자와 작동자의 관계가 남녀 간의 성별 위계를 바탕으로 한 노동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므로, 여성 기계 작동자는 남성 기계 관리자에게 가부장적으로 종속될 여지가 컸다(김상숙, 2018a, 176~177).

이러한 성별 위계구조를 통해 남성노동자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노동 감독자가 되고 때로는 사적인 후견인이 되어 작업장 안에서는 단순 인격적 통제와 성적 통제를 했고, 작업장 밖의 생활도 관리하여 노동력 이탈을 방지하며 노동력을 재생산했다. 이는 당시 이 부문에 종사했던 10대 미성년 또는 20대 미혼 여성노동자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이성 교제와 혼인 과정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김상숙, 2018a, 194~194).

요컨대,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은 국가, 가족, 기업에 의해 계급적 측면뿐 아니라 가부장적 측면에서도 차별받고 소외되고 통제된 상태에서 노동하며 자립적 삶을 꾸렸다. 그러므로 그들의 노동과정 자체가 이러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자주적인 생존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된 생존의 과정은 자본에 포섭되거나 순응하는 양상으로도 나타났지만, 새로운 해방의 지식을 만났을 때에는 폭발적인 힘으로 노동운동에 투신하는 추동력이 되었다.

3.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과 여성 주도 민주노조운동의 특징

1)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 개관

1970년대에 노동집약적 제조업 부문에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이 증대하면서 다양한 사업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률도 증가해, 1977년에는 19.5%에 달했다(한국노총, 2018, 59; 한국노동연구원, 1990, 152; 박현미, 2019, 1). 여성노동자운동을 통사적으로 서술한 이옥지의 저작(2001)을 참고해 이 시기 여성노동자운동의 주요 이슈와 운동이 일어났던 사업장을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 상황 개관

① 미조직 사업장의 노조 결성 투쟁			
	서울	경기, 인천	그 외 지역
봉제(의류제조), 섬유사/직물업체	청계파복, 한영섬유, 태광산업(광진섬유), 유림통상, 유영산업, 한홍물산, 무궁화주식회사, 삼경복	한일나일론(동양나일론 안양공장), 삼원섬유(인천, 스웨터/편직업체), 삼풍섬유(안양)	마산방직(마산), 태광산업 부산공장(부산), 호남잠사(김제), 국제방직(아산)

	장, 풍천화섬		
봉제(가발업체)	YH무역, 와이비리 상사, 서울통상	반도상사(인천), 한독산업(인천)	
전자	아이맥전자, 크라운전자, 천우사, 아남산업, 한국마벨, 동남전기	신한일전기(부천),	
제약/식품업체	한국화이자, 칠성음료, 국제약품, 종근당제약, 유한양행	유유산업(안양)	
그 외의 업체		제일제당 김포공장(김포)	남한제지 신탄진공장(대덕), 호남고무(목포), 한진콜크(원주)

② 노조 민주화 투쟁

	서울	경기, 인천	그 외 지역
봉제, 섬유업체	한국모방(원풍모방)	동일방직(인천)	
그 외의 업체	대일화학(파스, 밴드 생산), 인선사(노트, 앨범 제조업)		

③ 노조가 주도한 노동조건 개선 투쟁

	서울	경기, 인천	그 외 지역
봉제(의류제조), 섬유업체	광진섬유(구 태광산업)	나전모방	은성산업 옥천제사(옥천), 내외방직(대구), 삼익직물(대구), 동광모방(부산)
봉제(가발업체)		한독산업(인천)	
전자	한국시그네틱스, 페어차일드		
그 외의 업체	애경유지(화학), 삼원산업(금속)		

④ 어용노조 하에서 여성 평조합원들이 벌인 노동조건 개선 투쟁

	서울	경기, 인천	그 외 지역
봉제(의류제조), 섬유업체	대한모방, 경성방직, 방림방직, 남영나일론, 동광통산, 삼기물산	대한방직(수원), 태평특수섬유(인천)	
전자	대동전자		
제약/식품업체	삼립식품, 해태제과, 롯데제과, 진로		

⑤ 미조직 사업장의 노동조건 개선 투쟁

	서울	경기, 인천	그 외 지역
봉제(의류제조), 섬유업체	태한산업, 승한봉재, 동아염직		
그 외의 업체	대협(완구류 생산)		

자료 출처 : 이옥지(2001),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I』, 한울, 143~310쪽.

〈표1〉을 보면, 이 시기 여성노동자운동은 대부분 미조직 사업장의 노조 결성 투쟁으로 나타났고, 서울지역, 봉제·섬유업체에서 다수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일부 사업장에서는 신규노조 결성이나 노조 민주화를 통해 이전의

어용노조와는 구분되는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하였다. 1970년대 민주노조는 여성 중심 사업장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GM코리아, 대한전선, 신진자동차, 울산현대조선소 등 남성 주도의 중화학공업 부문에서의 노동운동 역시 민주노조운동의 범위에 포괄할 수 있다(김경일, 2005, 159). 여기서는 여성 중심 사업장 중에서 1970년대 민주노조로 평가된 사업장의 상황을 개관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1970년대 여성 중심 사업장 중 민주노조 사업장 상황 개관

노조명	업종	소재지	근무 노동자 수와 특징	노조 결성 년도
청계피복노조	의류제조업체	서울	1970년 작업장 800개, 2만여 명(여성이 80%). 1971년 노조 산하 사업장 579개, 노동자 수 8,832명(여 7,033명, 남 1,799명). 1972년 조합원 7,831명(여 6,659명, 남 1,172명) ³⁾	1970
동일방직노조	섬유(면방)업체	인천	1972년 당시 조합원 1,383명(여 1214명, 남 169명).	1946 동양방직 노조 결성, 5.16 이후 어용화, 1972 노조 민주화
삼원섬유노조	의류제조업체(일본인이 사주)	인천	300명(여성이 200명 이상)	1973 (1976년 폐업)
반도상사노조	가발 제조 봉제업체	인천	1973년 3,000~4,000명. 이후 인원 감소. 1974년 1,400명(여 1,200명, 남 200명). 여성 중 1000명이 기숙사 생활.	1974
YH무역노조	가발 제조 봉제업체	서울	1970년경 4,000여 명. 이후 인원 감소. 1978년 3월 현재 509명.	1975
한국모방(원풍모방)노조	섬유(모방)업체	서울	1971년 현재 1400명(여 1,200명, 남 200명).	1963 설립. 1972 노조 민주화.
콘트롤데이터노조	컴퓨터부품생산업체/다국적기업	서울	1974년 1,000명, 1976년 1,300명. 95%가 여성. 고졸 여성 채용.	1973
삼성제약노조	의약품 제조업체	서울	370명	1975

자료 출처 : 이옥지(2001),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I』, 한울, 317~412쪽 등.

〈표 2〉를 보면 1970년대 여성 중심 사업장의 민주노조들은 섬유나 봉제업체가 많다. 그리고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한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이 많다. 다음의 절에서는 이 노조들 중 여성 주도 민주노조의 활동 특징은 살펴보겠다.

3)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제1차년도 대의원 대회 사업보고서』, 1971.12.19.;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제2차년도 대의원 대회 사업보고서』, 1972.11.26.

2) 여성 주도 민주노조의 특징 : 여성 리더십 형성

주지하다시피 1970년대 노동조합에는 관변노조나 어용노조, 또는 노조의 실질적 활동이 거의 없던 ‘유령노조’들이 지배하던 시기이다. 이들의 상층부인 한국노총 역시 1946년 우익 진영의 노동단체로 출범한 대한노총이 전신이다. 대한노총은 해방 직후 활발히 활동하던 전국노동조합평의회(전평)에 맞서 결성된 단체로 정권의 동원기구 노릇을 하다 1960년 4.19 이후에 한국노총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노사협조주의 노선을 추구하던 한국노총은 1970년대에도 기업 측의 파트너가 되어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정책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일종의 노무관리 기구 역할을 하던 어용노조에서 간부가 되는 것은 일종의 출세를 위한 발판이었고 매점 운영권 획득과 같은 경제적 이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어용노조에서는 여성 중심 사업장에서조차도 노조 간부는 남성이 대부분이었다. 1971년 기준으로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 여성간부 현황을 보면, 여성조합원 비율이 30% 이상인 산별조직은 8개였으나 산별노조 중 부녀부장이 있는 상근하고 있는 조직은 6개 조직뿐이었다. 산별노조 지부의 여성간부 비중도 작았다. 일례로 섬유노조의 경우, 1965년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33,061명 중 여성은 27,934명으로 84.5%를 차지했으나 지부 간부 376명 중 여성은 65명으로 20.9%에 불과했다. 그 역할도 노조에서 주변업무에 해당하는 부녀부장 등 부녀부서 업무에 집중 배치되었고, 노조 업무에서도 차별받았다. 그래서 당시 노조 조직 여성 간부의 역할은 ‘꽃꽂이 하는 데 쓰는 화분’이라는 말조차 있었다(박현미, 2019, 66, 70, 72).

1960년 4.19 직후 만들어져 어용노조가 아닌 민주노조로 알려진 제일모직 조차도 파업 시 투쟁의 주력은 여성이었으나 간부 중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작았다(김상숙, 2017a, 33). 그러다 보니 어용노조 안에서 여성 간부들이 개별적으로 노조 내부 남성 지배 권력과 싸우며 현장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다 해고된 사례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 민주화란 어용노조의 행태에서 벗어나 기업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추구하던 ‘자주적 노조’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여성 중심 사업장에서 선구적 여성노동자들이 지부장 등 간부로 선출되어 여성 리더십을 형성했다. 노동조합 사상 한국 최초의 여성 지부장이 탄

생된 것은 1972년의 동일방직이다(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1985, 32). 곧이어 원풍 모방에서 여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가 탄생되었고, 1974년에는 반도상사에서 여성 민주노조가 결성 되는 등 1970년대에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자가 중심이 된 민주노조가 결성되었다(이옥지, 2001, 159; 강남식, 2004, 333). 그리고 이것은 여성을 비하하고, 무시해온 노동현장의 관행을 송두리째 뒤엎는 일종의 혁명이었다. 이를 통하여 여성노동자들은 여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여성으로서의 자각을 얻었으며, “여자들이 지부장을 하고 노조를 운영하는 정치 비슷한 것을 할 수 있다는 데 희망과 감격을 느끼기도” 했다(석정남, 1984, 32; 김정일, 2005, 169).

이에 따라 민주노조가 아닌 노조를 포함하여 노조 조직에서 전반적으로 여성 간부 수가 늘어났다. 1970년대 후반 한국노총 소속 산별노조 지부의 여성 간부 현황을 보면, 1975년 8월 지부 483개, 분회 3,450개에 여성 간부 수는 총 990명으로 지부장 5명, 부지부장 20명, 분회장 27명, 부분회장 34명이 배출되었다. 산별로 보면 섬유노조 420명, 체신 136명, 자동차노조 128명, 화학 111명, 금속 69명, 연합 5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977년에는 산하조직의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여성 간부 수는 1975년보다 줄어든 557명으로 보고되었으며, 그중 지부장은 9명, 분회장은 56명, 부장은 492명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성 지부장 9명은 반도상사, 동일방직, YH무역, 시그네틱스, 고미반도체, 부산보세, 한독산업, 삼성제약, 콘트롤데이터 등에서 배출되었다. 1980년 7월에는 지부 577개, 분회 5,434개에 여성 간부는 총 2,006명으로 지부장 19명, 부지부장 51명, 분회장 183명, 기타 부장은 68명, 부녀부장 680명이 배출되었다(한국노총 사업보고, 1975, 1977, 1980; 박현미, 2019, 67~68). 물론 전체 노조 조직 수에 비해 여성 간부의 비중이 큰 것은 아니었고, 특히 지부장 등 상층 간부의 숫자는 그다지 많지는 않았지만, 여성 주도 민주노조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 간부의 역량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김원은 YH무역노조의 박태연의 구술을 인용하면서 당시 여성 주도 노조가 민주노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즉, 박태연의 말에 의하면, 당시 여성 주도 민주노조에는 항상 사측의 사주를 받아 남성노동자들이 노조를 와해하고 어용노조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으므로, 민주노조 간부들은 노동자를 대변하고 조합원의 지지를 받아야 노조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층노동자의 호응을 받는 여성 리더들은 도덕적이고 민주적

일 수밖에 없었다(김원, 2005, 476~477). 즉, 1970년대 상황에서 ‘자주적 노조’의 유일한 생존 방법은 조합 민주주의 실현이며, 결국 자주적 노조와 민주노조의 동의어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여성 주도 민주노조가 자본과 국가로부터의 노조를 지키려면 지부장 및 지도부가 강한 카리스마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김원은 당시 산전에서 일했던 최영희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즉, 최영희에 의하면, 1970년대 여성 사업장에서 민주노조를 결성하고 유지하려면 “지부장에게 모든 힘을 실어 현장의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했으며,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장의 외부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다 보면 결국 노조는 깨진다.”는 것이다(김원, 2005, 478).

이러한 여성 지도부의 카리스마는 남성 지도부의 권력 지향적인 카리스마와 달리 현장 지향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특징이 있다. 여성 중심 사업장에서 관리자 또는 준관리자 출신으로 노조 간부가 되던 남성들과 달리 여성 간부들은 기층 현장에서 성장해온 노동자들이다. 현장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왕언니’이자 ‘대변인(spokesmen)’들이다. 여성들은 조직을 관계의 네트워크, 그물망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직의 중심 역할(center-women)을 하는 리더가 구성원들을 상호 연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acks, 1988). 그리고 남성과 달리 조직의 위(top)에 서기보다는 조직의 중심(center)에서 구성원들을 상호 연계시키는 상호 작용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Helgesen, 1990). 이와 같은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여성 리더십 형성의 전통은 현재 여성노조와 여노회 등의 조직에서도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즉, 현재 이들 조직에서는 ‘왕언니’이자 ‘대변인(spokesmen)’으로서 현장 지향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여성 리더십을 의도적으로 육성해나가고 있다(박진영, 김명아, 2001, 21; 김상숙, 2017b, 218).

3) 여성 주도 민주노조의 특징 : 소모임과 대의원 모임을 통한 조합민주주의 실현

국가와 자본의 탄압이 극심한 상태에서 자주적 노조인 민주노조가 생존하려면 아래로부터 노조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1970년대 여성 주도 민주노조에는 소모임이 기본적인 구성단위로서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

원풍모방의 경우 노조가 민주화되기 전부터 현장 노동자들이 지오세, 도시 산업선교회와 교류하면서 만든 소모임이 다수 있었으며, 이 모임들은 1972년에는 민주 집행부가 들어서는 기반이 되었다(김남일, 2010, 103~109). 그 뒤 노조 전성기에는 500명 정도의 조합원들이 취미 모임, 종교 모임 등 50~60개의 소모임에 가입해 활동했다. 나중에는 노조가 추동하지 않아도 소모임들은 스스로 재생산을 해나갔다. 소모임은 노조의 일상적 교육 공간이었고 주요 투쟁이나 행사 때는 별동대 역할을 했으며, 간부 발굴의 장이 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소모임은 1970년대 10년간 원풍모방에서 민주노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동력이 되었다(원풍모방 해고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 1988, 42~3, 161~2; 김원, 2005, 484~490).

YH노조에서도 다양한 소그룹을 운영하여 활동했다. YH노조는 주요 안건이 있을 때에는 상집위원들이 조합원들을 소그룹으로 나눠서 각 소그룹을 대상으로 조합원 교육을 하거나 활동방법을 논의했다. 또한, 상조회, 한문반, 녹지중학교, 동일교회 야학, 합창단, 탈춤반 등이 주요 소그룹으로 있었다. 특히 1977년 만들어진 영클럽은 정기적인 학습을 통해 대의원과 핵심적 조합원을 배출하기도 했다(전 YH노동조합, 1984, 113~123; 김원, 2019, 119).

청계피복노조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적 클럽이 여성노동자들의 주요 활동 공간이 되고 교육 공간이 되었다. 청계피복노조 클럽의 조직 현황을 보면, 1971년 10월 30일 현재, 모체인 아카시아회 밑에 7개의 클럽이 조직되어 있었으나, 1972년 10월 30일 현재, 모두 15개 크럽에 155명의 회원으로 확대되었다(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1972). 다양한 주제와 목적을 내걸고 자율적으로 조직된 클럽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은 연대의식을 키워 나갔다. 또한, 조직운영에 따른 회의와 집회, 연락과 동원 등을 경험하고 배웠다. 이에 따라 클럽 조직 활동 과정에서 노동조합운동의 핵심역량, 운동의 중심세력이 훈련되고 형성되었다(유경순, 2005, 133; 김무용, 2011, 67).

여성 주도 노조에서 소모임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우선 소모임이 여성의 존재조건과 친화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들은 어린 시절부터 소규모의 친밀한 집단에 익숙하도록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소규모의 비공식적인 관계를 선호하는 특성이 있고, 공식적이고 규모가 큰 집단보다는 소규모 집단 그 안에서 활발하게 의사를 표시하는 경향이 있다. 소집단은 조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소집단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므로 민주적 의사소통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유용하다 (Oppenheim, 1991). 소모임 구성원들은 '역할 나누기'를 통해 조합원 모두가 작은 역할이라도 나누어 맡음으로써 조직 운영이나 행사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소집단들의 관계망은 수평적이고 유연하며 비위계적인 의사결정의 토대가 된다(박진영·한승희 외, 2001, 121; 김상숙, 2017b, 216).

소모임 중심의 활동방식은 1980년대에는 변혁적 노동운동을 강조하고 현장 외부에서 정치사상의 주입과 투쟁위원회 중심의 정치선전을 강조하던 흐름이 일어나면서 한계가 있다고 비판받기도 했다. 그러나 소모임은 여성노동자들이 생각하기와 말하기 등 자기표현 능력을 훈련하고 해방적 지식을 얻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특히 1970년대에는 기숙사에 함께 거주하던 미혼 여성노동자가 많았고 그들은 소모임을 통해 인간관계가 깊어져 새로운 '유사가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노조활동이 생활 공동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김상숙, 2017b, 217~218).

1970년대 여성 주도 민주노조에서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했던 또 다른 축은 대의원 모임이었다. 대의원은 현장의 기층 노동자와 노조 지도부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중요하다.

1970년대 민주노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직력을 가졌던 원풍모방노조에서는 2,100명 가운데 700명은 늘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조직력이 있었다(박수정, 2003, 156~7). 이 조직력의 중요한 바탕의 하나가 대의원의 교육 및 동원이었다. 원풍모방의 대의원은 대체로 부서별, 반별로 조합원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1인씩 선출했으며, 1973년 이래 전체 대의원 및 상집 선출에서 남성노동자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게 규정함으로써 남성 주도로 노조가 어용화되거나 무력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막았다. 대의원 대회는 2~3백 명의 조합원과 각 부서 간부들이 방청하는 가운데 진행되곤 했는데, 대의원들이 회의장에서 근로조건 개선 요구 및 고충처리 사항을 회사 대표에게 직접 요구하면, 방청하는 조합원들이 이에 호응하고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원풍모방 해고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 편, 1988, 152; 김원, 2005, 481).

YH노조의 경우, 전체 조합원이 2,000여 명이던 시기 대의원 규모가 200여 명에 이를 정도였다. YH노조의 대의원 모임은 정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장단 4인, 상집위원 21인, 대의원 41인 등으로 이어지는 '5단계 토의방식'은 조합원의 참여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대의원들은 조합원들의 단결의 중심이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김원,

2019, 119~120). 이처럼 여성 주도 노조에서 대의원들의 모임은 노조의 중간 지도력으로서 기층 조합원들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촉매자가 되기도 하였다.

4) 여성 주도 민주노조의 특징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여성친화적 투쟁전략

소모임과 대의원 모임 등이 민주노조의 토대가 되고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1970년대 여성 주도 민주노조에서는 교육과 의사소통을 중시하여 교육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 교육방식도 다양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합원 간의 유대를 강화했다. 이처럼 여성 주도 민주노조들의 특유의 활동방식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YH노조의 경우, 1975년 노조 결성 초기부터 조합원들에게 작업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늘 보고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주었다. 1976년에는 새마을 교육 시간을 역으로 활용하여 노조 교육을 하기도 했다. 노조는 연초에는 임투 교육, 가을에는 단협 교육, 겨울에 조합원 전체 교육까지 매년 3회에 걸쳐 조합원 교육을 했다. 교육방식은 주로 강의는 짧게 마치고 조합원 각자의 생각과 의견 발표를 주로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김원, 2019, 116~117).

원풍모방노조에서는 조합원 교육, 대의원 교육, 상집 간부 교육, 남자 조합원 교육, 종교별 교육 등 두세 명만 모여도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소모임의 경우, A, B, C 반별, 작업부서별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도는 주로 상집 간부 및 노조 상근자들과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교육 내용과 형식도 다양했다. 몇 부리지 않기, 사치하지 않기, 고운 말 쓰기, 욕하지 않기 등의 실천 약속을 하는 소모임도 있었고(박수정, 2003, 148), 빈촌과 부촌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을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이러한 교육은 하나의 소모임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모임에도 확산되었다(김원, 2005, 488).

여성 주도 노조에서 자주 취하는 교육 방식은 참여형 교육이다. 이 교육은 주입식이나 강의식이 아니라 피교육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는 방식의 교육이다. 노동자들이 노조에서 권장하는 소모임 활동을 하다 보면 생활 나눔을 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참여형 교육이 진행되게 된다. 이러한 교육 과정은 단순히 투쟁을 위한 지식 전달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게 하는 훈련의 장이 되고 사회적 권력과 지위가 낮아서 자아존중감이 낮았던 이들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 된다. 나아가 조합원

상호간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하면서 함께 자신의 삶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김상숙, 2018b, 219).

여성 주도 민주노조들은 투쟁방식에서도 여성 친화적이고 유연한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면, YH노조는 투쟁 안전이 있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다수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준법투쟁을 자주 전개했다. 1979년 3월에 회사가 폐업을 한 뒤 몇 달에 걸친 투쟁 기간에도 장기투쟁에 대비하면서, 지속적인 준법투쟁으로 조합원의 참여를 이끌어내었다. 이러한 투쟁방식을 통해 YH노조는 회사와 공권력의 집요한 탄압에도 300여 명의 조합원을 유지하면서 1979년 8월에 신민당사 농성을 전개했다(김원, 2019, 120).

소수가 전투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보다는 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이 동의하고 끝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투쟁전술을 개발하여 진행하는 이러한 방식은 운동과정에 투쟁 당사자를 주체로 세우는 ‘당사자주의’ 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합원을 주체로 내세우는 당사자주의 원칙에 의한 투쟁과정은 많은 노력과 인내심이 요구되고 진척 속도는 더딜 수 있다. 그러나 싸움을 당사자의 힘으로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이혜순, 2008, 43).

물론 이러한 방식이 여성 주도 민주노조의 모든 투쟁에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수 간부들 중심으로 권위적으로 진행되면서 조합원들을 지치게 만드는 투쟁 전술보다는 여성친화적 전술은 실리적이고 민주적이며, 투쟁 이후 조합원들의 공동체적 유대를 강화하고 단결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970년대 여성 주도 민주노조의 이러한 투쟁방식도 오늘날의 여성노조와 여노회 등 여성노동자운동에 계승되고 있다(김상숙, 2017b, 221~222).

5) 몇 가지 쟁점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사 연구는 다양한 쟁점으로 논쟁하며 진행되어왔다. 그 중 여성의제 실현 문제와 여성노동자와 종교단체의 관계 문제에 관한 논쟁을 소개하고 이 글의 본론을 마무리할까 한다.

먼저,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민주노조운동에 나타난 여성의제 실현 문제에 관한 논쟁과 연구 상황을 소개하겠다.⁴⁾ 노조에서 여성의제란 여성의 이

4) 이 절의 앞 단락은 김경일(2005)과 박현미(2019)의 연구에서 이 쟁점에 대해 정리한 대목

해와 관련된 이슈, 즉, 임금과 승진승급의 차별 해소 등 성 평등권과 관련된 이슈, 또는 모성 보호, 성희롱 방지와 같이 여성에게 특수한 이슈 등 남성들에게 의미가 없지만 여성에게는 의미 있는 이슈를 지칭한다. 1970년대 한국 여성노동자운동과 여성의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물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노동운동이 여성의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연구들이다(강인순, 2001; 정현백, 2006 등).

또 다른 연구 흐름은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민주노조운동에서 여성의제를 주된 이슈로 다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강남식, 2004; 김경일, 2005; 방혜신, 1993; 진양명숙, 2007; 한명희, 2011). 대표적으로 콘트롤데이타노조 사례가 자주 소개된다(강남식, 2004; 방혜신, 1993; 한명희, 2011). 김경일은 이 시기 여성노동운동에서 여성의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않은 이유는 현장 여성노동자 대부분이 미혼이었던 사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콘트롤데이타노조 외에도 민주노조가 결성된 일부 사업장에서 미혼 여성노동자들이 생리휴가, 임금과 노동조건에서의 차별,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의 철폐, 평생 평등 노동권의 보장, 직장 탁아소 설치와 같은 문제들을 제기하였다고 했다(김경일, 2005, 173). 이외 여성의제 실현 사례로는 삼성제약의 수유시간 확보 사례(방혜신, 1993), 섬유업체의 수당 삭감 없는 생리휴가 확보 사례(진양명숙, 2007, 470) 등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박현미(2019)는 이 주제의 분석 대상을 한국노총의 조직운동에까지 확장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한국노총에서는 모성보호 문제를 196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리고 1960년대 전매노조나 체신노조에서는 결혼퇴직제 철폐 활동이 있었고 생리휴가, 수유시간, 산전산후 휴가문제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1970년대 중반 금융노조에서도 결혼퇴직제 폐지 투쟁이 있었다고 하였다(박현미, 2019, 30~31).

한편, 유경순(2017a)은 민주노조들은 사업장의 성별 구성, 성별 지도력, 노조 내부의 성별 구성 등의 차이로 인해 노조 내부 젠더 관계가 달랐으며 이에 따라 노조별로 여성의제 실현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에 의하면, 청계피복노조는 남성 주도적 지도력을 중심으로 노조 내부 성별 위계화가 나타났고, 이에 저항하여 여성 간부들이 두 차례나 여성 지부장을 선출하려 시도한 적 있었다. 원풍모방노조에서는 남녀 공동 지도력을 형성해 성차별 해소를 위한 단체협약을 만들어내었다. 그러나 노조교육 등의 체계로

을 참고했다(김경일, 2005, 173; 박현미, 2019, 30~31).

일상화시켜내지 못해 이를 실체화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한편, 100% 여성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성별 갈등이 없었던 콘트롤데이타노조는 여성 주도적인 지도력을 형성해 여성 의제를 실천했다.

두 번째로,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민주노조운동과 종교단체의 관계 문제도 이 분야 연구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여성노동자들의 민주노조운동에서 교회 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신광영·김현희, 1996). 구해근(2002)도 진보적인 교회조직들은 이 시기 여성노동자운동을 촉진시키고 노동운동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민주노조운동에서 종교단체는 독립변수라기보다는 매개 변수 역할을 했다고 보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자발적 측면을 강조했다.

김경일(2005)은 종교단체들과 민주노조 사이의 상호 관계를 보면 동일방직이나 원풍모방과 같이 양자가 매우 밀착된 사례가 있었던 반면, 거의 독자적으로 운영된 경우 있었고 양 극단의 중간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배치될 수 있으나, 어느 경우이건 외부 지원자들의 개입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즉, 여성노동자운동은 지금까지 평가되어온 것 이상으로 노동자 스스로의 의지와 역량에 의해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외부 지원자들은 여성노동자들과 존재조건의 차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의 절박함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고, 노동현장에 직접 접근할 수는 없었으며 노동자들이 농성과 같은 직접 행동을 할 경우 의견 차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외부 지원자들과 노동자들 사이에, 그리고 종파를 달리하는 종교단체 및 그와 연계된 각각의 노동자들 사이에, 또한 종교단체와 연계된 노동자들과 그렇지 않은 노동운동집단 사이에서의 반목과 경쟁이 있었다. 1970년대 말 동일방직이나 YH무역, 1980년대 초 원풍모방의 사례처럼 체제의 극심한 탄압은 노동자들의 직접 행동과 외부 투쟁을 유발했는데, 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담을 주었고 결국 양자의 관계는 파국을 맞았다. 그러므로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을 서술할 때에는 양자의 관계에서 나타난 이러한 균열과 갈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원(2005)도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민주노조운동에 종교단체가 미친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동일방직과 같은 여성 민주노조에서 도시산업선교회

등 이른바 교회 단체와의 연계가 반드시 긍정적이지는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에 의하면, 노조 활동 및 방향에 대한 외부 지원자의 지나친 개입, 노동문제의 사회화로 인한 노조로서의 기능 상실, 민주 대 어용이라는 이분법에 기초한 ‘어용 만들기’ 등 술한 모순과 균열이 양자 사이에 있었다. 그는 구해근(2002)이 여성노동자에 의한 민주노조운동을 ‘민주화 담론’에 기초해서 ‘무오류의 신화’로 해석한 점도 함께 비판했다. 또한, 김원이 인용한 바에 의하면, 최장집(1988)도 1970년대 민주노조 재생산과정에서의 딜레마를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운동 초기에 종교단체가 했던 역할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교회가 노동운동 태동기에 있어서 ‘경제적 조합주의’로 노동운동을 이끈 점이나, 1970년대 후반에 탄압이 극심하던 시기에 투쟁이 외부세력과 연결되면서 노조의 자주성이 붕괴되었던 과정의 부정적 효과를 지적했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이 주제에 관한 논의는 ① 종교단체와 남성 지식인을 운동의 주체로 놓고 여성노동자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계급 차별적이고 성 차별적인 해석에 대한 비판, ② 특정 시기 운동을 무오류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왔으며, 아울러 민주화운동 담론 속에 다른 모순과 갈등을 부차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필자는 1970년대 민주노조에는 노조마다 차이는 있지만, 외부 단체의 영향과 지원이 있었던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외부 지원에 대해 현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어떻게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했는지와 같은 문제를 더 천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일례로 YH노조는 주요 간부들이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았다. 심지어 1979년 3월에는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으로 지부장 최순영이 중앙정보부로 연행되는 사건까지 있었다. 그런데 YH노조에서는 이것이 노조가 특정 외부 세력이나 인물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가운데 노조는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활동방식을 수용하고 자신의 교육방식과 조직방식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노조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는 원풍모방 노조 지도부 구성원들과 지오세의 관계에 대한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그 후의 사회운동에서도 계속 나타났고 지금도 다양하게 실행되고 있는 ‘당사자 집단과 외부 지원세력의 연대’ 문제를 해석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글을 맺으며

1970년대는 국가의 정치적·제도적 노동 통제, 국가·기업·가족이 공모한 가부장제의 실현, 이를 바탕으로 한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과 노동과정 통제 속에 성별 임금격차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전략이 실행되었던 시기이다. 이에 따라 당시 여성노동자들은 국가, 가족, 기업에 의해 계급적 측면뿐 아니라 가부장적 측면에서도 차별받고 소외되고 통제된 상태에서 노동하며 자립적 삶을 꾸렸다. 그들의 고된 생존의 과정은 자본에 포섭되거나 순응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지만, 새로운 해방의 지식을 만났을 때에는 폭발적인 힘으로 노동운동에 투신하는 추동력이 되었다.

1970년대에 노동집약적 제조업 부문에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이 증대하면서 다양한 사업장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률도 증가했다. 이 시기 여성노동자운동은 서울지역, 봉제·섬유업체에서 다수 일어났으며, 대부분 미조직 사업장의 노조 결성 투쟁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전의 어용노조와는 구분되는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하였다. 여성 중심 사업장의 민주노조운동은 섬유나 봉제 업체 중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한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많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업장에는 선구적 여성노동자들이 지부장 등 간부로 선출되어 여성 리더십을 형성했다. 기층노동자의 호응을 받는 여성 리더들은 도덕적이고 민주적이었으며 강한 카리스마가 있었다. 이러한 여성 지도부의 카리스마는 남성 지도부의 권력 지향적인 카리스마와 달리 현장 지향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특징이 있었다. 또한, 1970년대 여성 주도 민주노조에는 소모임이 기본적인 구성 단위로서 아래로부터 노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토대가 되었다. 대의원들의 모임은 노조의 중간 지도력으로서 기층 조합원들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촉매자가 되기도 하였다. 그들은 교육과 의사소통을 중시했고, 참여형 교육을 자주 했다. 투쟁방식에서도 소수가 전투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보다는 다수가 동의하고 끝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전술을 개발하는 등 여성 친화적인 방식을 취했다.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은 이후에 전개된 한국 여성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당시 운동의 당사자들은 1980년대 이후에는 각 지역에서 여성노동자회를 건설하면서 새로운 여성노동자운동을 건설하는 데 주축이 되었다. 새로운 여성노동운동의 진행 과정에 과거 여성 주도 민주노조의 여러 활동방

식은 좀 더 여성주의적으로 초점을 맞춰 이론화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여노회와 여성노조와 등의 여성노동자운동으로 계승되면서 조직적으로도 집중성과 전문성을 갖게 되었다.

사실 필자는 처음에 이 주제를 맡았을 때에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싶었다.

하나는 민주노조운동이라는 범주에 묶이지 못한, 그러나 국가와 기업, 그리고 작업장의 남성 지배 권력에 저항했던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에 관해 다루고 싶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여성노동자운동이 민주노조운동과 등치되는 것은 아니다.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은 전체 여성노동자운동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그 대상도 수도권 일부 대기업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민주노조운동의 언저리에서, 또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일어난 여성노동자운동의 실상을 찾아내어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주제를 연구하려면 좀 더 장기적인 프로젝트 하에 다른 연구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기에 후속 과제로 미룬다.

또 하나 관심을 두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는 1970년대 여성 주도 민주노조운동의 공동체적 성격과 인간화운동의 측면이다. 노조마다 차이가 있고 정세에 따라 차이가 있었겠지만, 1970년대 여성 주도 민주노조는 일종의 경제적 이해관계 실현을 위한 투쟁조직만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유신독재의 엄혹한 시기에 국가기업·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소외된 상태에서 가장 고된 삶을 살던 여성 노동자들이 머물던 공동체적 터전이자 해방구와 같은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에는 인간다움, 노동과 삶의 고귀함을 자각하기와 같은 인간화운동의 측면이 있었다. 그때로부터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사회운동사 속에 많은 이념과 노선이 흘러갔지만, 당시의 운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명력을 갖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요소는 바로 이 점이 아닌가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1970년대 여성 주도 민주노조운동은 한때 경제주의나 조합주의로 폄훼되었으나, 사실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혁명적인 요소를 품었던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 역시 질적 연구와 같은, 다른 방식의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므로 후속 연구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남식(2004), 「70년대 여성노동자의 정체성 형성과 노동운동」, 『산업노동 연구』, 제10권 제2호.
- 강인순(2001), 「1980년 이후 한국여성노동자운동: 평가와 과제」, 『인문논총』 14.
- 곽원일(2012), 「한국교회와 도시산업선교에 대한 구술사 연구 : 1960, 70년 대 여성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구해근, 신광영, 율김(2002),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
- 김경일(2005), 「1970년대 민주노동운동의 쟁점 - 여성과 지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2015년 11월호.
- 김경희(2005), 「1970년대 노동 : 여성 노동자의 작업장 생활과 성별분업 - 1970년대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11권.
- 김금수(1996), 『한국노동문제의 상황과 인식』, 풀.
- 김남일(2010), 『원풍모방 노동운동사』, 삶이보이는창.
- 김무용(2011), 「1970년대 청계피복노동조합운동의 젠더화와 문화투쟁」, 『역사연구』 제20호.
- 김무용(2005), 「1970년대 동일방직 노동운동의 조합민주주의와 젠더정치」, 『1970년대 민중운동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상숙(2007), 『지역과 젠더통제, 여성노동자들의 저항: 80년대 대구지역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2017a), 「1960년 4월 혁명기 대구지역 노동운동 - 제일모직노조와 대구시노동조합연맹의 활동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129집, 113~150.
- _____(2017b),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안적 노동운동: 사회운동 노동조합주의 관점에서 본 전국여성노동조합의 활동과 전망」, 『민주주의와 인권』 제17권 2호.
- _____(2018a), 「젠더 통제의 변화와 여성 노동자의 생활경험 - 1970~1980년대 대구 제직공장의 ‘기사’-‘직수’ 팀 노동조직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119집.
- _____(2018b), 「‘희망 고문’과 고투(苦鬪) - 산업체 학교 제도와 여성 노동자들의 생애사적 경험 : 1980년대 대구경북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제9호 2권.
- 김 원(2005), 『여공 1970, 그녀들의 反 역사』, 이매진.

- _____(2019), 「1979년, 그녀들의 선택 - YH노동조합 신민당사 농성」, 『역사비평』 2019년 8월호.
- 김현미(1999), 「한국노동운동의 담론 분석을 통해 본 성적 재현의 정치학」, 『열린지성』 제6호.
-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1985), 『동일방직 노동조합 운동사』, 돌베개.
- 미셸 바렛, 신현옥·장미경·정은주 편역(1995), 『페미니즘과 계급정치학』 (Feminism and class politics), 여성사.
- 박수정(2004), 『숨겨진 한국여성의 역사』, 아름다운사람들.
- 박진영·한승희·김명숙·이주환(2001), 「여성의 세력화를 위한 여성친화적 조직 방안」, 『전국여성노동조합 출범 2주년 기념 토론회 보고서』.
- 박현미(2019), 「발전국가시대의 성별화된 노동조합과 제1세대 여성노동자 연구 : 1960~70년대 한국노총 활동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방혜신(1993), 「70년대 여성노동운동에서 여성특수과제의 실현조건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아현(2019),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의 교차적 연대 : 다사건 분석을 통한 YH 사건의 비판적 재구성」,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석정남(1984), 『공장의 불빛』, 일월서가, 1984.
- 신경아(2018), 「‘여성’일자리정책,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여성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언」,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문재인 정부, 여성노동정책에 없는 것!』 (2018 여성노동대토론회 자료집).
- 신광영·김현희(1996), 「여성과 노동운동: 70년대 여성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96년 후기사회학대회 발표 논문.
- 신순애(2012a), 「13살 여공의 삶」,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_____(2012b), 「1960~70년대 한 여성 노동자의 삶」, 『내일을 여는 역사』 48호.
- 원풍모방 해고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 1988, 『민주노조 10년-원풍모방 노동조합활동과 투쟁』, 풀빛.
- 유경순(2005), 「청계피복노조의 활동과 특징」, 『1970년대 민중운동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_____(2011), 「1970년대 청계피복 노동자·지식인의 연대관계형성과 상호영향」, 『한국사학보』 44.
- _____(2017a), 「젠더관계에서 본 1970년대 민주노조의 유형별 특성」,

- 『기억과 전망』 36호.
- _____(2017b), 「노동조합의 지도력과 젠더정치 청계피복노조의 여성지도력 형성 시도와 좌절 (1970~1987)」, 『역사문제연구』 Vol.21 No.2.
- 이광욱(2005), 「1970년대 청계피복노동조합의 소모임 활동과 노동자의식의 변화」, 『역사연구』 제15호.
- 이옥지(2001),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I』, 한울.
- 이혜순(2008), 「노동조합운동의 여성 노동자 조직화 현황과 과제」, 『노동사회』 130호.
- 장명국·이경숙(1988), 「민족민주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의 과제: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새벽』 3호 1988.
-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1971), 『제1차년도 대의원 대회 사업보고서』, 1971.12.19.
- _____(1972), 『제2차년도 대의원 대회 사업보고서』, 1972.11.26.
- 전순옥(2004),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 한겨레신문사.
- 전 YH노동조합(1984), 『YH노동조합사』, 형성사.
- 정현백(2006), 「한국의 여성운동 60년」, 『여성과역사』 4.
- 조순경·여난영·이숙진(1989), 「여성노동과 성적통제」, 『한국여성학』 제5권.
- 조옥라(1994), 「가부장적 기업구조와 여성 노동운동」, 『사회과학연구』 제3권.
- 진양명숙(2007), 「여성노동운동에 나타난 계급과 젠더: 1970-80년대 전북지역 여성노동자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7(2).
- 최장집(1985),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 한울사.
- _____(1988),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열음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1984), 『노동현장의 증언』, 풀빛.
- 한국노동연구원(1990), 『1990년도 임금관련 통계자료집』.
-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18), 「2018년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 자료집」.
- 한명희(2011), 「70년대 민주노조운동에서의 여성과제 : 콘트롤데이터 노동조합 여성사재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Chung, Jinjoo(1997), Education in the Making of Women's Work History : The Role of Government and Household in Korea, AJWS Vol.3 No3. 45~76.
- Helgesen, Sally(1990), The Female Advantage: Women's Ways of

- Leadership, New York: Doubleday Currency.
- Oppenheim, Lisa(1991), Women's Ways of Organizing: A Conversation with AFSCME Organizer, *Labor Research Review* 18. 45~59.
- Sacks, Karen Brodtkin(1988), Gender and Grassroots Leadership, Women and the Politics of Empowerment, eds. Ann Bookman and Sandra Morgen.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Seguino, Stephanie(2000a), Gender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A Cross-Country Analysis, *World Development* 28:7, 1211~1230.
- _____(2000b), Accounting for Gender in Asian Economic Growth, *Feminist Economics* 6:3, 27~58.

2019년 YH 여성노동자 김경숙을
다시 생각하다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19년 YH 여성노동자 김경숙을 다시 생각하다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왜 '김경숙'을 다시 생각하는가?

1979년 8월 11일 새벽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이던 YH무역 노동조합 여성 노동자 187명을 끌어내기 위해 경찰 1,200여명이 투입된 진압 과정에서 김경숙은 생명을 잃었다. 그리고 40년 동안 김경숙은 20여년에 걸친 박정희 독재정권을 종식시킨 사회운동의 불꽃을 당긴 인물로 기억되었고 그녀의 죽음의 진실도 규명되었다. 살아남은 선배이자 동지 최순영과 동료들은 김경숙의 존재를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녀를 기리는 기념의례를 계속해 왔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몇 해 동안 추도식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YH노동조합의 동지들은 무덤을 새로 만들고 그녀의 마지막 말을 기억해 후배들에게 전했다.

그러나 '김경숙 열사'라는 이름에 값하는 그녀가 남긴 삶의 흔적을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1970년대 노동운동은 ‘전태일’에서 시작해 ‘김경숙’으로 막을 내렸다”는 YH노동조합 지부장 최순영의 말은 여러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지면에 실리고 방송을 탔다. 그러나 그 말의 빈도만큼 의미도 충분히 전달되었을까? 그 짧지만 강력한 진술이 갖는 무게와 깊이를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1979년 8월 11일 오후 신민당사 4층 강당 조만간 경찰이 들이닥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공포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며 성명서를 낭독하고 동료들을 위로하는 노래까지 불러주었던 ‘YH노동조합 조직차장 김경숙’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 YH 사건이후 역사상 유례없는 야당 총재의 제명과 부마항쟁, 10.26 박정희의 죽음과 전두환의 쿠데타, 5.18 광주항쟁, 그

리고 8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숨 가쁜 혁명의 시간을 열어젖힌 ‘여공 김경숙’의 죽음에 한국사회가 진 빛은 얼마나 청산되었나? 그의 후배인 여성노동자들은 4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나?

이 글은 1970년대 노동운동사의 마지막 장을 쓴 YH 여성노동자 김경숙의 존재를 여성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과 같은 노동의 주체로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평생을 누릴 수 있고 이러한 권리와 책임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한다. 또 한국의 산업화 시대를 살아간 노동자가 평범한 ‘여공’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리더로 변신해 간 과정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가혹한 노동 억압을 토대로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한 박정희 정부 산업화 시대를 종식시킨 정치적 저항운동의 맥락에서 YH 여성노동자의 투쟁과 김경숙의 실전을 다시 조명해보려는 의도를 포함한다.

2. YH 여성노동자 투쟁과 김경숙을 기억하는 현재의 수사(修辭)

1) YH 사건의 기록과 해석

① 사건의 기록

YH무역은 1966년 뉴욕 한국무역관 부관장직에 있던 장용호가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한 가발 및 봉제품 수출업체로 설립 4년 만에 종업원 3천여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가발업체로 급성장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9). 수출실적이 좋아 대통령 표창 석탑 산업훈장을 받기도 한 YH무역은 창업주 장용호가 동서 진동회를 사장에 앉히고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려 미국으로 이민을 가 용인터내셔널을 설립했다. 또한 진동회는 사원 상여금으로 10억원을 지불했다고 장부상에 기록하고 이 돈으로 대보해운을 설립하여 사장에 취임했다. 이 과정에서 본 공장은 위기에 몰리고 1,800여명으로 종업원이 줄었다. 새로 대표이사가 된 박정원도 1977년 은행 빚으로 오리온전자를 인수하고 새한칼라 주식을 44% 매입하는 등 간부들의 회사공금 횡령이 이어졌다. 여기에 가발산업의 사양화로 경영여건도 악화되면서 YH무역의 경영은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 그 사이 종업원도 줄어 1978년 중반에는 600여명으로까지 감소

했다.

결국 YH무역은 1979년 3월말 ”4월말로 폐업한다“는 공고를 게시했고, 폐업사유로 “회사의 부실화는 장 회장이 갚지 않은 15억원의 부채가 원인이 되었으며 주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의 빚이 40억 5천만원에 달하고, YH무역과 대보해운의 주식 100%를 조흥은행이 압류하고 있어 은행거래가 중지되는 등 계속 운영하면 임금채불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57). YH노조는 관계기관에 회사 정상화를 호소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4월 13일 총회를 열고 회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태릉경찰서가 100여 명의 기동대와 20여 명의 사복형사를 투입해서 농성 중인 여성노동자들을 구둑발로 차고 곤봉으로 구타하면서 강제해산시켰다. 그런데 여성노동자들이 다시 모여 농성을 계속하자 4월 17일 회사 측은 폐업 철회와 정상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최대채권자인 조흥은행 측에서 정상화 안에 대해 확약하지 않자 YH노조는 조흥은행을 찾아가는 한편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사태 해결을 호소하는 공문을 발송했다.⁵⁾ 7월 30일 회사정상화회의에서 해결방법을 도출하지 못하자 YH노조는 낮에는 일하고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부터 저녁 10시까지 기숙사에서 농성을 하면서 각계에 호소문을 발송했다. 회사는 다시 사표를 종용하며 8월 6일 폐업공고를 내고 공장 폐쇄조치를 단행했다. YH노조는 비상대의원대회를 열고 논의 끝에 정치권에 호소하기로 결의한 후 8월 9일 신민당사 4층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이틀째인 8월 11일 새벽 2시 경 사복경찰과 기동경찰대 1,200여명이 강당에 들어왔다. 진압부대는 강제해산 작전과정(‘101호 작전’)에서 여성노동자, 신민당 의원 및 당직자, 취재기자 등 100여명에게 곤봉 등 진압장구 외에 벽돌, 쇠파이프, 의자 등 불법장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그 시각 YH노조 김경숙이 추락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8월 13일 경찰은 「신민당사 YH여공농성사건의 진상」을 발표하고, “김경숙은 경찰 진입 30분전인 8. 11. 01:30 추락사망”하였으며 사망경위에 대해 “동맥을 스스로 절단한 뒤 투신자살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찰의 주장은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거짓임이 밝혀졌다.

5) 1979. 7. 3. 자료 노조는 노동청장, 재무부 장관, 청와대 민원비서실장, 조흥은행장 앞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② 사건의 해석

한국의 노동운동사에서 1970년대는 ‘노동운동의 전사(前史)’에 속한다. 계급적 성격을 지닌 본격적인 노동계급운동은 1980년대 중화학공업 남성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최장집, 1988; 구해근, 2002). 따라서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은 노동계급이란 집단적 주체가 형성되기 이전 민주노동조합이란 조직의 틀을 세우기 위한 기초작업 정도로 간주한다.

남성연구자들이 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을 바라보는 시선도 연민에 가깝다. 어린 나이에 취업해 결혼 전까지 머물렀던 공장 생활에서 가혹한 착취에 시달리다 못해 일으킨 강렬한 저항이라는 식이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자본에 맞설 만큼 기술도 없었던 어린 여성들이 기숙사 생활에서 맺어진 단단한 동지애를 바탕으로 일으켰던 일시적인 집단행동이라는 것이다. 이런 ‘70년대 어리고 가여운 여성노동자’의 이미지는 ‘전태일의 신화’에서도 나타난다. 전태일이 버스비를 아껴가며 풀빵을 사주었던 평화시장 봉제공장의 소녀들이 그들이다.

이런 맥락에서 YH 여성노동자들의 투쟁도 회사의 폐업으로 길거리에 내몰린 여성들이 남성지식인들의 지도 내지 도움을 받아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인 사건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런 해석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다. 하나는 박정희 정부의 입장이다. 당시 노동자교육을 주도하던 ‘도시산업선교회’ 등 기독교계 지식인들이 배후에서 여성노동자들을 부추겨 기업과 정부를 공격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박정희 정부는 사건 직후인 1979년 8월 16일 이 사건을 “일부 종교를 빙자한 불순단체와 세력이 산업체와 노동조합에 침투해 노사분규를 선동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한 사건으로 규정했다(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Y·H문제대책위원회, 1979). 다른 하나는 노동운동사의 남성적 시각이다. 기숙사에서 농성 중인 여성노동자들을 위로 방문했던 재야 지식인들이 신민당사로의 이전을 도왔던 것을 두고 이를 해석하는 방식에서 이들 지식인들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이런 해석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중심을 두지만 여성노동자-남성지식인의 연대 사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서아현, 2019). 이 짧은 시간의 지원이 ‘연대’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연대’라기보다는 ‘지원’이 더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2) 김경숙의 기억과 해석

김경숙은 1958년 음력 6월 5일 전남 광산군 비아면 월봉리의 가난한 가정에서 큰 딸로 태어났다. 건어물 장사를 하던 아버지는 경숙이 8살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가 행상으로 경숙과 남동생을 키웠다. 1971년 경숙은 광주 남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동네 무허가 장갑공장에서 봉제일을 하던 중 친척을 따라 서울로 가 양동의 제품공장, 한풍섬유, 태신산업, 이천물산에서 일하다 76년 8월 30일 YH무역에 입사했다. 김경숙은 공장 취업 후 실질적인 가장으로 3개월에 한번씩 5-6만원을 동생 학비 명목으로 고향집에 보냈다.

그동안 열렸던 추도식 자료에서 간략히 정리한 김경숙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1958. 6.5.	전라남도 광산군 비아면에서 아버지 김용귀씨와 어머니 최영자의 장녀로 태어남.
1966. (9세)	광주 남국민학교 입학
1971. (14세)	국민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광주 누에고치 공장에서 노동자 생활 시작
1972. (15세)	광주 남국민학교 졸업
1973. (16세)	서울로 상경. 양동에 있는 하청 제품공장, 한풍섬유, 태진산업, 이천물산 등을 전전하며 봉제공장 미싱사로 일함.
1976. 8.30.(19세)	YH무역(주) 입사
1977. 3. (20세)	YH.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선출.
6.	YH. 노동조합 설립한 녹지야학 입학.
1978. 5. (21세)	YH. 노동조합 조직부 차장으로 선출.
7.	YH. 노동조합 소그룹 차돌이 그룹장으로 활동.
12.	녹지야학 졸업.
1979. 1. (22세)	동일교회에서 실시한 사회과학 공부 시작.
3. 30,	YH. 무역(주) 일방적 폐업공고 발표로 YH사건 시발.
4. 13.	YH노조 폐업철회 공장 점거 농성, 5일 동안(폐업 1차철회됨) 후생부 책임담당으로 활동.
7. 25.	회사정상화를 위한 노조대의원 대회에서 추진위원으로 선출
8. 11.	신민당사 4층 점거농성 중 경찰의 '101호 작전'에 의해 사망
2001. 9. 2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공식 인정
2008. 3.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경찰의 자살설 거짓으로 판정

김경숙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은 2001년 9월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지위로 주어졌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정부의 공식기록에 한정될 뿐 실제 한국사회의 사람들에게 그녀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지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김경숙은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별 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 인물일 것이다. 197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김경숙은 YH사건으로 희생된 여공 정도로 기억될 수 있다. 『YH노동조합사』, 『시대의 불꽃 김경숙』과 같은 책이나 <KBS 인물현대사 여공 유신을 몰아내다 YH사건 김경숙>, <꽃다운 : YH 김경숙 30주기 기념 다큐> 같은 자료를 접해 본 이들이라면 김경숙이 유신체제를 무너뜨린 시발점이 된 ‘YH사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더 상세히 알 수도 있다.

그러나 김경숙의 삶과 죽음에 내포된 시대적 의미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명료하지 않다. 오히려 그녀의 삶은 1979년 2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 시점의 해석으로 박제화되어 별다른 성찰 없이 우리에게 던져져 왔다. 대표적인 예가 『YH노동조합사』(형성사, 1984)이다. 전두환 군사정부의 엄격한 통제 시대에 이런 책이 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YH노동조합과 당시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의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첫 부분을 차지하는 두 편의 글은 당시 남성 지식인이 가진 여성노동자에 대한 시선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YH를 생각하며’라는 머리글에서 고은은 YH 여성노동자들을 ‘민족의 해당화’로 김경숙을 ‘한서린 처녀의 삶을 끝낸’ ‘민족의 꽃송이’라고 불렀다. 자신의 이념적·젠더적 시각으로 YH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해석한 것을 볼 수 있다.

첫 장에 실린 양성우 시인의 <김경숙 추도사>는 더 분명하다. “그대 못다 부른 슬픈 노래를”이란 제목의 추도시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그대 못다 부른 슬픈 노래를

양성우

아아, 열아홉 순정이 짓밟히는구나

영경귀 쑥대밭에 불길로 타고

두 손에 큰 돌멩이 나눠들고 소리치며

아아, 열아홉 순정이 짓밟히는구나

평생을 살아봐도 오히려 낯선
짐승 우는 야만의 푸른 언덕 위에
누가 남아 피흘리며 날선 칼을 꽃을까?
모두가 어둠 속에 묻힐지라도
밤은 끝내 밤으로만 남는 것은 아니나니,
그대 못다 부른 슬픈 노래를
땅을 치며 부르리라, **예쁜 아가씨**
죽어서도 오히려 또다시 죽는
이 나라의 배고프고 **예쁜 아가씨**
눈 먼 풀잎 모조리 태우는
끝모를 모래 벌판 여름 불별 아래
아아, 열아홉 순정이 짓밟히는구나

시의 전반적인 정조는 추도시답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김경숙에 대한 아픔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YH 노동자투쟁의 희생자답게 ‘영정귀 쑥대밭’ ‘불길’ ‘돌맹이’ ‘피흘리며’ ‘날선 칼’ ‘어둠’ ‘밤’ ‘모래벌판’ ‘여름 불별’ 같은 고난과 시련의 상징어들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여성노동자 김경숙의 이미지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다. ‘열아홉 순정’ ‘짓밟힌’ ‘예쁜 아가씨’가 그녀를 가리키는 언어들이다. 김경숙은 이 시에서 노동자도, 주체적인 여성도, 민주노동조합의 지도자도, 죽음을 각오하고 독재정권에 맞선 투사도 아니다. 열아홉 순정을 짓밟힌 예쁜 아가씨일 뿐이다. 물론 시인이 김경숙을 이렇게 이미지화한 것은 엄혹한 노동탄압의 시대에 생명을 잃은 여성노동자의 죽음이 갖는 비극성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려는 의도에서였을 수 있다. 그러나 40여년이 지난 지금 내게 읽히는 것은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정권의 가혹함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여성노동자 김경숙의 삶과 죽음을 가장 단순한 차원으로 환원해 버리는 남성적 시각이다. 이런 수사(레토릭)는 민주화운동 시대 내내 우리가 보아온 것이다.

지금 읽어보면 매우 익숙하지만 어설픈기 짝이 없는 환원론적 수사가 이 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김경숙의 묘지에는 “저 악독한 유신팏쇼를 끝장낸 바, 한 떨기 백합꽃 아가씨여”로 시작되는 시인 고은의 묘비명이 있다. 시 자체는 김경숙과 YH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절절이 그리고 있지만 첫 구절에

서 김경숙은 역시 ‘한 떨기 백합꽃 아가씨’로 상징된다. 왜 백합꽃으로 묘사되었는지를 짐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순결하고 고귀한 그 무엇을 지닌 존재라는 남성 시인 고은이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여성노동자는 ‘꽃송이’로 환원되고 ‘아가씨’로 대상화된다. 김경숙의 가묘가 1989년에 조성되었다면 이 시도 그 때쯤 씌어졌을 것이다. 민주화운동 시대 남성 지식인이 여성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상상할 수 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런 해석이 20세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16년에 작성된 한 자료에도 여성은 가녀린 존재 내지 독재자의 술시중을 듣다 그를 품에 안은 존재로 기록되어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오픈아카이브에 수록된 김경숙 관련 자료에는 동일방직과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중 한 편의 글은 “가녀린 여공들을 짓밟았던 유신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술시중을 들던 젊은 모델과 여가수의 품에서 독재자가 쓰러짐으로써 종말을 맞았다”고 유신시대의 마지막을 기술했다(한종수, 2016). 여기서도 김경숙은 유신체제에 짓밟힌 “가녀린 여공”으로 기록되고 있다.

1980년대부터 2016년까지 작성된 네 편의 글에서 김경숙은 열아홉 순정의 나이에 짓밟힌 가여운 여공 또는 한 떨기 백합꽃으로 묘사된다. 생전의 김경숙과도, 죽음에 맞선 김경숙과도 어울리지 않는 해석이다. 민주화운동 시대 남성 지식인들의 시선이 만들어낸 대상화이자 반(反)여성적인 규정이다. 여성 스스로의 눈으로 김경숙의 삶과 죽음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3. 김경숙, 여성의 눈으로 다시 보기

1) 최순영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YH 여성노동자 투쟁

“노조 만들 때 기숙사 이불 속에서 불 꺼놓고 가입서 받아 브래지어에 숨겨서 밖으로 빼 왔다. 그 때 회사에서 회유책을 엄청 썼다. 하청공장 차려주겠다, 동생 학비 대주겠다. 시집갈 밑천 주겠다...”(최순영의 회고, 장남수, 2012)

1970년 YH무역에 입사해 1975년 5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지부장에 선

출된 최순영은 처음부터 노조를 이끌어갈 생각은 아니었다고 이야기한다. 노조를 만들고 퇴직하려 했던 그녀는 공장을 차려준다거나 결혼자금을 대주겠다는 회사 측의 회유에 반발심을 느끼고 여성조합원들의 지지 속에 79년 사건이 터질 때까지 지부장을 연임했다. YH 사건 이후 현재까지 최순영 지부장이 써 온 글이나 인터뷰, 본 연구팀과의 만남에서 제시한 진술에 따르면, YH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이었다.

1975년 노조를 만들 당시 최순영은 섬유노조에서 원풍모방 박순희 부지부와 동일방직, 반도상사의 여성노조활동가들을 만났다. 또 이화여대 신인령 교수가 이끌어 가던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교육을 받으며 노동운동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당시 도시산업선교회나 카톨릭노동청년회(JOC)와 같은 남성 종교인과 남성 지식인들의 모임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관계를 맺지 않았다. 인터뷰 내내 최순영은 YH 노동조합은 여성들의 조직적 활동이었음을 강조했다.

YH 노동조합이 여성들의 조직적 실천이었다는 사실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첫째, YH 여성노동자들의 신민당사 투쟁이 남성 지식인들에 의해 기획되거나 이끌어진 운동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당시 교회인권위원회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YH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79년 4월 회사의 1차 폐업공고 이후 회사는 물론 조흥은행, 노동청, 청와대, 정당과 언론사, 미국대사관에게까지 호소문을 보내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노동조합 간부들이 직접 나서서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했던 것이다. 남성 지식인 및 종교계와의 접촉은 2차 농성시 장소를 회사 기숙사에서 외부 기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이루어졌다. 1979년 8월 6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업공고를 내자 조합원들이 모여 투쟁 방향을 논의했고, 80% 이상의 조합원들이 YH 노조가 완전히 부서지더라도 다른 민주노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농성을 계속하는 데 찬성했다(배지영, 2002). 농성장소를 신민당사로 결정한 것 역시 최종적으로는 최순영을 중심으로 한 노조대의원들의 판단이었다.

둘째, YH 노동조합은 지부장 최순영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의 노동자의식을 키워갔으며 기숙사 생활을 통한 강력한 자매애(sisterhood)가 투쟁의 동력이 되었다. 최순영은 지부장 선출 이후 모든 대의원과 상집간부를 크리스찬 아카데미 교육에 참여하도록 했는데, 이 때 교육은 신인령을 비롯한 여성지식인과 여성노동자운동의 리더들이 주도했다. 또한 YH 노동조합의 활동 방식

에서도 소집단 활동과 교육에 주력했다. 노동조합에서 중학교 과정을 설치해 김경숙 등 여성노동자들이 ‘녹지야학’에서 공부했다. 지금 남아 있는 대의원 회의 사진 중에는 하얀 칼라를 뿔뿔이 세운 당시의 중학생 교복을 입고 참석한 여성노동자들의 모습이 실려 있다. 김경숙의 일기에는 기숙사에서 동고동락하며 우정을 나눈 친구들의 이야기가 빼곡히 담겨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YH 노동조합의 실천을 남성노동자를 배제한 여성들만의 분리주의적 투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 YH 사건을 여성노동자와 남성지식인의 연대가 낳은 결과로 해석하는 것에도 앞서 지적했듯 주의가 필요하다. YH 여성노동자들은 당시 한국의 기업들이 여성노동자들의 민주노조운동을 막기 위해 남성들을 구사대로 활용했던 시대의 한복판에 있었다. 이를 너무나 잘 알았던 최순영은 남성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의 성과는 모두 나누어 줄 테니 회사 편에서 구사대 노릇은 하지 말라고 부탁했고 이러한 전략은 성공했다. 최순영이 남성노동자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되 적대시하지 않은 데에는 ‘동일방직 여성노동자 톱물사건’이 있었다. 1972년 동일방직 노동조합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지부장이 선출된 이래 동일방직 노동조합은 여성 지부장을 밀어내고 남성 지부장을 세우려는 회사 측의 민주노조 파괴 행위로 진통을 겪었다. 1,300여명의 노동자 중 200여명에 불과한 남성노동자들이 노조를 지배해 온 상황에서 도시산업선교회 조화순 목사 등의 노력으로 주길자, 이영숙, 이충각 등 여성 지부장이 탄생했다. 이에 지부장을 남성으로 바꾸려는 회사 측의 불법적 행위가 계속되었고, 급기야 1978년 2월에는 회사 측에 매수된 남성노동자들이 대의원 선거 투표장을 습격해 톱물을 퍼붓고 여성조합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의 노동운동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의 하나로 남아 있는 이 사건은 70년대 남성노동자들이 구사대란 이름으로 회사 측에 매수되어 동원된 전형적 사례다. 최순영을 비롯한 YH 노조 간부들은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 분노했고 남성들이 구사대로 회사 편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므로 “남성노동자와는 대립각을 세우되 외부 남성 지식인 집단과 연대하는 이중적 젠더 전략”(서아현, 2019)이란 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YH 여성노동자운동은 젠더 경계를 악용한 노노갈등 상황을 생생히 지켜본 지도부가 처음부터 절대 다수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하되 남성들이 적대적인 입장을 서지 않도록 협상해 간 시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YH 여성노동자운동은 ‘성분리주의’나 ‘남성을 적대시’한 실천이 아니며, 오히려 민주노조운동을 탄압하는 장애요소

가 될 수 있었던 남성노동자들을 회사 측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견인해 간 실천으로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공’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여공(女工), 즉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정확하게는 ‘제조업 생산직 여성노동자’를 가리키는 이 말에는 산업화 시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행사했던 상징 폭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어떤 직업에 ‘여(女)’를 붙이는 것 자체가 직업적 지위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 오지만, 이것이 70년대 ‘공순이’로 불렸던 ‘공’과 만나면서 성별이라는 범주와 노동자라는 계급의 위계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집단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70년대로 돌아가면 ‘여공’은 계급 사다리의 가장 밑바닥에 놓인 집단이 아니었다. 가난한 농민, 도시의 빈민, 반실업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직업을 가진 제조업 생산직 여성노동자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특히 YH무역은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출 대기업으로 영세하청공장보다 좀 더 나은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YH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숙련 기술을 쌓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특히 가난한 가족의 생계부양자로서 고향 부모의 생활비와 남자형제들의 학비를 지원했다. 이러한 경제적 자부심과 일터를 지키려는 욕구,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감 등은 YH 여성노동자들의 강력한 조직적 저항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 <김경숙의 일기>를 통해서 본 여성노동자 김경숙

김경숙은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해 여러 권의 일기를 남겼다.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보관 중인 일기 중 서울에 올라와 공장에 취업한 후 쓴 일기는 디지털화되어 열람이 용이하다. 이 일기는 1978년 1월 1일부터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2개월 전인 1979년 6월 4일까지 1년 반 동안 써내려간 기록이다. 이 글을 중심으로 김경숙이 여성노동자로서 가진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다.

① 가난한 농민가족의 큰 딸, 여성노동자 김경숙

1978년 1월 1일 김경숙이 새 일기장에 새해의 결심을 담기 시작한 날부터

같은 해 4월 중순까지 쓴 일기는 타향살이의 외로움과 장시간 노동의 피로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 공장과 야학 학습을 병행하는 기쁨과 고단함, 고용불안정에 대한 걱정, 삶의 피로, 교회 예배와 신앙생활, 기숙사 친구들과의 소소한 즐거움 등을 담고 있다. 21살 여성노동자가 일터와 일상생활에서 겪는 슬픔과 기쁨, 외로움과 고통, 반성과 다짐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2.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마음, 고향에 대한 그리움. 별로 길지 않은 세월 나홀로 외로이 언제까지나 애타게 살아야 하나. 타향살이의 고단함.
- 1.3. 77년 1900명이 넘었던 노동자가 지금 600명밖에 되지 않는다. 외톨이가 되어 성경에 의지한다. 야간학교도 임시 방학을 해서 야간작업을 한다. 울적하다.
- 1.4. 하청회사의 옷이 불량이 많아 내일 새벽 4시까지 일해야 한다. 육체는 고달프고 눈이 아파오며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 머리가 어지럽다.
- 1.5. 밤샘작업. ‘눈이 말을 듣지 않고 한참동안 졸았다. 흰 눈을 뵈으며 야학에 가는 마음이 들뜬다... 친구 생일인데 돈에 쪼들려 선물을 하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
- 1.6. ‘학교에 오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
- 1.7. 영어 시간에 까막눈이 되었다. English를 가장 싫어한다. 이럴수록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 자신이 미웠다. 성실하고 총명한 학생이 되자.
- 1.12. 月經 시작. 한문이 좋다.
- 1.14. 항상 미루던 월급을 제 날짜에 받아서 기쁘다.
- 1.15. 기독교 정신. 부지런히 일합시다. 피차에 봉사하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자. 빨래를 삶느라 세 시간만 잤다.
- 1.18. 공전이 약한 자리에서 일하게 돼 슬프다.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창밖에 목화송이 같은 눈들이 헤아릴 수 없이 내리고 있다.... 눈아눈아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있겠지. 영어공부를 따라가지 못해 걱정된다. 기숙사 생활의 고달픔.
1. 24. 구정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심정.
1. 25. 첫 적금 납입. 알뜰한 생활 속에 저축하여 남들 맛있게 먹는 호떡 사 먹지 않고 돈을 아껴 집에 한 푼이라도 부쳐 주리라. 열심히 모으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가게 하나라도 마련하여 어머님 고생을 더 하지 않도록 하고 준곤이 동생을 가르쳐 동생만은 성공시키리라. 나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

2.3. 저녁에 학교에 가지 않고 극장에 가서 괴로워 함.

2.4. 구정을 앞두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마음.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들리지 않았다. 친구들이 너 집에 가니 물을 때 나의 머리를 찡 울리며 옛 모습이 되살아나 숨이 가슴을 억매이듯 어지러워진다... 나라는 존재는 왜 태어났을까? 무엇을 위하여 삶의 터전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 (학교에도 결석)

2.6. 구정 전야를 친구와 보낸 이야기. 먹은 것 기록(엿, 달걀, 사과 등)

2.7. 친구와 빈대떡(김치전)을 만들어 먹음.

2.14. 동생에게 사전, 책을 부쳐줌. 노조 지부장과 조직부장을 만남. 돼지우리와 같이 지새우는 나의 생활을 바라보며 생각할 때...

2.15. 월급 중 재형저축이 문제가 생겨 마음이 어지럽다. 학교에서도 교사의 말이 들리지 않고.. 도장 분실로 인해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

2.16. ‘야학을 하는데 가정교사의 흥얼대는 말이 나에게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다. 요즈음 학교를 다녀야 하나 망설이기도 한다. 죽고만 싶다. 정신상태를 똑바로 정하고 강철 같은 힘을 기르도록 노력한다.’

2.17. 슬픔, 고난, 괴로움... 마음에 두지 말고 이해하도록 하자.

2.19. 일요일에도 작업

2.21. ‘작업이 늦게 끝나 저녁도 못 먹고 학교에 늦게 갔다’. 사회시간에 요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주체성에 대해 생각했다.

3.9. 축농증 때문에 괴롭다.

3.15. 밤 11시까지 힘들게 작업.

3.17. 일감 때문에 잠도 자지 않고 일했다. ‘야학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바쁜 작업 속에 엮매여 죽도록 일을 했다.’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일’ 일하다 코피를 쏟고 정신을 잃었다.

3.18. ‘거울을 바라보니 나의 얼굴이 아니었다. 얼굴이 부어 아침 7시까지 일하고 아침을 먹고 또 근무하였다. 나의 몸은 지치고 지쳐 비틀대면 속사에 돌아와 밥을 먹는데 밥이 먹히지 않았다.’

3.20. 노조 지부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노동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3.21. 화요일이 좋다. 사회수업. 노동자의 현실. 불평등에 대한 교육.

- 3.27, 황금지상주의, 금전만능주의
- 3.29. 축농증의 고통. 주님께 기도.
- 3.30. 노동조합가 기록함.
- 4.1. 토론수업
- 4.2. 안식일인데도 일함.
- 4.3. 월요일 아침이지만 피곤하다. 육체의 피곤함. 요즈음 지속적인 일과 야간작업을 해오다가 하청이래서 수출날짜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 노예생활을 한다. 학교에 가야 할 단 2시간도 제대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작업에 임하여... 먼 앞을 향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쯤은 문제없이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다.
- 4.4. 아침 7시 30분부터 일을 시작해 자정까지 일함.
- 4.5. 먼지로 인한 고통. '하루빨리 먼지 안에서 도피할 수는 없으려나' '봄은 나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나 어림도 없어. 봄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 4.6. 뽕뽕대는 미싱. 피로에 휩싸였던 나의 육체. 한식일이지만 아버지 산소에 성묘 가지 못했다.
- 4.7. 모처럼 정상근무하고 퇴근. 기쁘다. '사람은 고통이 사라지며 행복이 돌아오고 고달픔과 즐거움을 교체하며 삶을 개척하며 목표를 달성하나보다.'

1978년 1월부터 3월말까지 김경숙은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다. 밤잠도 자지 못하고 일하는 상태에서 느끼는 육체적 고통과 질병, 야학에 대한 애착과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는 괴로움, 도급제 속에서 단가가 낮은 일을 할당받게 돼 느끼는 속상함, 적금을 붓고 동생 학비를 대는 큰 딸의 자부심, 구정에도 고향에 가지 못해 느끼는 단절감 등이 21살 여성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김경숙은 일만큼 학교수업을 중요시했는데, 특히 한문과 사회 과목을 좋아하고 영어를 싫어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자주 한문 단어나 구절이 등장하고 사회 수업에서 배운 노동 관련 이야기가 쓰여 있다. 반면 영어시간에는 까막눈이 된다고 느끼며 'English가 싫다'고 힘주어 썼다.

이 시기 김경숙의 일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가난한 가족에서 태어나 큰 딸로서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을 부양하려는 책임감이 두드러진다. 교회 모임에서 쓴 글('생활의 발자취')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티 없이 맑고 깨끗하게 태어나지만 집안환경관계로 인해 차이가 생겼다'고 생각하며 가

난한 자신의 가족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멈추지 않는 코피를 쏟아가며 철야작업을 하고 봉급이 밀려 풀빵 5원짜리 30원어치로 생계를 이어갔던 하청공장 생활에서도 자신을 버티게 한 것은 ‘고향’이라고 썼다. 긴 시간 객지 생활로 남은 것은 병든 몸밖에 없지만 동생만은 공부를 가르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간절히 바랬다. 1970년대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큰 딸로서 가난한 가정을 부양하고 오빠나 남동생의 학비를 댔던 현실과 다르지 않다.

둘째, 살인적인 수준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늘 긍정적인 다짐으로 일기를 끝맺는다.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로 피곤하고 악화된 축농증으로 숨 쉬기도 힘들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결심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그녀의 생활조건이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그녀가 자신을 성찰하고 좌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 갔음을 알려다. 이러한 딸의 성향을 아는 김경숙의 어머니는 79년 경찰의 자살시도에 의한 추락사 주장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살할 딸이 아니라는 강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정영훈, 2017).

셋째, 회사는 지속적으로 인원을 감축하지만, 필요할 땐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야간학교에도 가지 못하면서 수출물량을 맞춰야 하는 노동의 종속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 교육을 받고 노조지부장을 만나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런 문제의식이 기록된다. 그러므로 ‘김경숙과 같은 70년대 여성노동자들에게 계급의식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 80년대 남성 지식인들이 이론을 통해서 계급의식을 획득해 갔다면,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계급을 체험하고 그것에 저항했다. 그들은 가난한 가족과 그 안에서도 가장 낮은 지위에서 불평등을 경험했고 일상을 구속하는 공장-기숙사 노동체제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통제를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가족이라는 계급재생산 도구의 작동 효과라는 것을 알았다. 김경숙의 일기는 이런 사회적 조건에 대한 그녀의 인식을 분명히 보여준다.

넷째, 김경숙이 타향살이의 외로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정신적 지주는 기독교 신앙이다. 일요일이면 동일교회에 나가 예배를 보고 성가대 활동을 했던 그녀는 일요일에 교회에 가지 못하고 일을 할 때 무척 괴로워했다. 시간이 부족해 교회에 규칙적으로 나가지 못해도 김경숙의 마음 속에는 늘 기독교 신앙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독교 신앙은 그녀의 일기를 인내와 희생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개척해 나가는 고난극복의 영웅서

사로 만들었다.

② 친구에서 동지로, 노동조합의 간부가 되다

김경숙이 살았던 상대적으로 평온한 일상은 1978년 4월 초 일기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회사에서 나쁜 소문이 돌고 동료들의 사직이 계속되면서 김경숙의 일기에도 불안감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일기를 쓰는 횟수가 줄었다. 그러나 5월 초 노조 간부로 임명되면서 김경숙은 인식의 전환(turning point)을 경험한다. 대의원회의에서 토론하고 대의원 교육에 참여하면서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가 처한 현실의 구조적 모순을 이해하고 노동운동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4.17. 회사의 소문. 불안하다. 사직자가 늘어난다. 일반봉제과는 휴가.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며 힘차게 살아간다.

4.20. 10일 동안 휴가. 출근하니 기뻐다.

4.28. 동료들의 사직으로 마음이 어수선하고 울적하다. 야학에 다니며 한없이 배우고 싶다.

5.1. 고향에 대한 그리움. ‘늪우치며 삶의 세계를 헤쳐 나가며 잘 살 수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될 것이다.’

5.2. 야학에 가지 않고 대의원들과 토론했다.

‘내가 모르고 있었던 일, 임금 착취시키기 위하여 휴가를 주며 자진사퇴할 때 내 마음은 아팠다... 개개인을 생각하지 않고 뭉쳐서 인원 감소를 막고 나의 권리와 인격을 찾아야 한다.’ ‘단결하고 뭉쳐서 싸워야 한다.’ ‘본 공장을 돌려라.’ ‘고용 완전 찾자’ 단결, 권리, 뭉침, 싸움, 비평.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

5.6. 야학에 가지 않고 조직부장의 부탁으로 1박2일 대의원들과 모임을 가졌다. 일영 유원지로 나갔다. ‘동지들’이란 표현 처음 등장.

‘허허 들판을 걸어가는 여러 동지들은 공기가 탁탁한 서울의 생활을 벗어나 보낸다는 이 밤을 마음껏 노래 부르며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개구리도 우리를 반기며 개굴개굴 노래를 한다.’

5.9. 대의원대회에서 사장에게 요구조건을 제시함.

5.24. 영생, 구원, 은혜, 자비, 사랑, 온유, 허락.

7.2. 신앙 이야기

7.28. 더위로 온 몸에 땀띠가 난 이야기

8.15. 동일교회 수양회

1978년 4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김경숙은 가끔 일기를 썼다. 폐업 반대 농성 후 느끼는 고용불안과 회사, 야학을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 나가겠다는 다짐이 4월에 쓴 일기의 내용이다. 이후 5월 초 야학을 빼먹고 참가한 대의원 회의에서 김경숙은 ‘노동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한다. 며칠 후 실시된 1박 2일 대의원 교육을 받으면서 그녀는 완전한 의식의 전환을 겪은 것 같다. 5월 6일 일영유원지로 떠난 대의원 교육에서 김경숙은 깊은 해방감과 함께 개굴개굴거리는 개구리마저 자신들을 응원하는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동지들’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김경숙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이다.

③ 동일방직 해고자와의 만남, 사상과 이념의 성장을 깨닫다

1978년 8월 15일을 마지막으로 1978년도 김경숙의 일기는 끝났다. 그리고 1979년이 시작되고 2개월이 지난 2월 23일 다시 일기 쓰기를 시작한다. 약 7개월의 공백 기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1979년 일기>

2.23. 동일교회 아가페학교에 다녀옴.

2.24. 동일교회 청년협의회 참여

2.25. 주일예배. 성가대원 활동. 동인천 카톨릭회관을 방문하여 동일방직 해고자를 만남.

‘비인간적인 사회의 모순점을 볼 때 정말 이가 갈리고 죽이고 싶다. 육체적으로 편안하기 위하여 연약한 근로자 여직공들을 왜 못살게 하는가. 작년에 동물까지 쳐 먹이고 자유롭게 현실의 입장을 발표하려 하는데 왜 저러나. 더러운 비인간화들은 꺼져라. 민주주의 이 땅위에 왜

왜 왜 정말 억울하기만 하고 울분만 나오고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 강
인해진다... 이 모든 일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억눌린 자와 함
께 하실 줄 믿으며 겸손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3.1. 3·1절 60주년 기념 소감. ‘현 시점에서 핵심적인 문제점들은 허끝으로
만 움직일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비춰보아야 되지 않을까’

4.5.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2쪽에 걸쳐 비장한 마음을 토로함.

4.22. 3년 만에 고향집 방문. ‘성숙해져버린 몸과 키, 그리고 사상과 이념.
어느 누가 이토록 우리를 성장시켰을까.’

6.4. ‘요즈음 나의 마음은 쉽게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욕망이 가슴 깊이
가득하다.’

여성학자 정영훈은 일기를 쓰지 않은 7개월 동안의 공백이 노동운동과 관
련돼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정영훈, 2017). 노조 대의원 활동에 바빴을 수
도 있고 일기에는 기록해서는 안 될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일들이 많았을 수
도 있다. 김경숙은 노조 간부로서 자기 활동을 일기장에 구체적으로 적지 않
았다.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정보를 남
기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2월 25일 인천 카톨릭회관에서 동일방직 해고자를 만난 후 김경숙은 ‘비인
간적인 사회의 모순점을 볼 때 정말 이가 갈리고 죽이고 싶다.’고 썼다. 특히
일기장의 글씨에서 ‘죽이고 싶다’란 글자에는 몹시 힘이 들어가 있다. ‘성실
한 모범생’이었던 그녀가 거친 어휘로 분노와 저주의 감정을 쏟아낸 것이
다.⁶⁾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노동자들이 이런 억압을 받아야 하는가 문
는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회를 바꾸어 가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녀의 이런 인식 변화는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녀의 내면세계의 중심인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서 김경숙은 노동자를 위한 실
천에 자신을 바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3년 만에 이뤄진 가족과
의 해후에서 그녀는 자신과 동생이 몸과 키뿐만 아니라, 사상과 이념의 성장
을 경험해 왔다고 기록한다. 가난한 농민의 딸에서 사상과 이념을 지닌 민주
화운동의 투사로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어 왔음을 깨달은 것이다.

6) KBS 다큐멘터리 인물현대사 김경숙편에서 김경숙을 가르쳤던 야학 교사는 그렇게 성실하
고 차분했던 김경숙이 YH 신민당사 농성사건을 이끌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기 어렵다고
증언했다. 평소 차분하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④ 일기 이후 : YH 여성노동자 투쟁을 이끌다

김경숙의 일기는 1979년 6월 4일로 끝났다. 그러나 그녀의 생의 불꽃은 그 다음부터 더 뜨겁게 타올랐다. 기록과 영상자료, 증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YH 여성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과정에서 김경숙이 보인 활약상은 역사상 그 어떤 노동운동 지도자에게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열정과 책임감, 진정성을 보여준다.

김경숙은 4월 13일 1차 폐업공고에 따른 농성에서 후생부 책임을 맡아 활동했다. 7월 25일 회사 정상화를 위한 노조대의원대회에서 56명의 추진위원 중 1명으로 선출되었고 7월 30일 조합원 총회에서 머리띠에 “단결·투쟁” 혈서를 썼다. 8월 8일 신민당사 진입 직전 전 조합원이 각 계에 보내는 탄원서를 쓸 때 마지막 부분에 혈서로 회사 정상화 요구를 썼다. 다큐멘터리 자료에 따르면 다른 노조 간부가 혈서까지 쓰지는 않아도 되겠다는 말을 했지만, 김경숙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8월 10일 저녁 신민당사에서 YH 노조 종결대회 준비 임원회의 때 아래와 같은 단호한 저항의지를 표현했다.

〈1979. 8. 10. 저녁 종결대회 준비를 위한 임원회의 시간에 김경숙 동지의 마지막 남긴 말〉

“나는 10년 가까이 노동생활을 하면서 가난의 속박과 소외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가를 체험했다. 그러다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노동자가 활개를 펴고 당당하게 우리주장을 하고 노동자 스스로 해결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그동안 우리의 노력은 내 생애 더없이 소중한 기간이었고 이 소중한 권리를 빼앗긴다면 또 다시 이전의 노예적 생활로 되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오늘 정부에서 힘없는 노동자를 무시하고 기업주 편을 들어 우리 노동자를 끌어낸다는 것은 이 정부가 철저히 노동자 존재를 무시하는 처사로 단정한다.

그러므로 우리 노동자가 노예가 아닐진대, 어찌 순순히 끌려 나갈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이 암흑한 노동현실에 이 한 몸 노동운동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노동운동에 거름이 된다면 바랄 게 없다.** 노동자를 철저히 소외시키는 이 사회에 노동자도 인간으로 살아 외칠 줄 안다는 것을 우리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시 회의 참석자가 한자리에 모여 김경숙의 마지막 발언을 기억해 정리한 것임.) 출처: 고 김경숙동지 6주기 추도식(1985) 자료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노동운동의 거름이 되겠다’는 김경숙의 말은 유언이 되었다. 이 말은 1970년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을 외치며 산화해 간 전태일을 연상시킨다. “1970년대 노동운동은 ‘전태일’에서 시작해 ‘김경숙’으로 막을 내렸다”는 최순영의 말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그리고 김경숙은 조합원총회에서 성명서를 낭독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언제 경찰이 진입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조합원들에게 노래를 불러 주었다는 것이다. 김경숙이 평소 자주 부르던 ‘진주난봉가’였다. 성가대에 설 만큼 낭랑한 목소리를 지닌 김경숙의 노래가 신민당사 4층 강당에 울려 퍼졌을 때 여성노동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태연하게 노래 부르는 그녀를 보며 짧은 순간이나마 위로와 평화를 느꼈을지 모른다. 김경숙은 자신의 전부를 던져 YH 여성노동자 투쟁을 이끌었다.

4. 맺음말 : 2019년 우리에게 김경숙은 무엇인가?

22살 김경숙이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흐른 지금 한국의 20대 여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2016년 5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3세의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음을 당했고 청년여성들은 분노해 거리로 나왔다. ‘강남역 10번 출구’로 기억되는 청년여성들의 모임 공간에는 수만 개의 포스트잇이 붙여지고 위험 속에 살아가야 하는 여성의 삶에 대한 성찰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은 같은 해 10월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촛불 시위로 이어졌고 다음 해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다. 40여 년 전 김경숙의 죽음이 박정희 정권 몰락의 시위를 당겼다면, 2016년 강남역 청년여성의 죽음은 광장으로 다시 사람들을 불러옴으로써 60여 년 간 지속돼 온 박정희체제를 무너뜨린 도화선이 되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주의 운동은 미투운동, 일터에서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여성들의 실천에 의해 확장되어 왔다.

그런데 지금 주목해야 할 문제는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조건이다. 오늘의 20대 여성노동자들은 김경숙의 시대와 비교해 얼마나 달라진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나? 그들은 여성으로서 또 노동자로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나? ‘젠더’와 ‘계급’이란 사회적 위치와 그로 인한 위계와 차별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만약 그 대답이 긍정적일 수 없다면, 우리는 또 다른 과제에 직

면하게 된다. 미투운동의 에너지를 일터에서의 성평등운동으로 연계, 확장시켜야 할 필요성이다. 2019년에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김경숙을 다시 만나야 할지 모르겠다. 김경숙의 삶과 우리의 삶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뛰어넘는 어떤 유사성의 조건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 유사성의 조건을 발견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김경숙과 우리 자신의 연대 속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1979년 대학 신입생이었던 나는 김경숙이 세상을 떠나던 그 새벽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를 그 시기에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 김경숙이 사랑했던 노래 <진주난봉가>를 따라 부르며 YH 여성노동자 김경숙의 삶과 투쟁이 지닌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진주난봉가>

울도 담도 없는 집에서 시집살이 삼년만에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애야 아가 며늘 아가
진주남군 오실터이니 진주남강 빨래가라

진주남강 빨래가니 산도 좋고 물도 좋아
우당탕탕 빨래하는데 난데 없는 말굽소리
옆눈으로 힐긔보니 하늘 같은 갓을 쓰고
구름같은 말을 타고서 못본듯이 지나더라

흰 빨래는 희게 빨고 검은 빨래 검게 빨아
집이라고 돌아와보니 사랑방이 소요하다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애야 아가 며늘아가
진주남군 오시었으니 사랑방에 나가봐라

사랑방에 나가보니 온갖 가지 안주에다
기생첩을 옆에 끼고서 권주가를 부르더라
이것을 본 며늘자기 건너방에 물러나와

아홉가지 약을 먹고서 목매달아 죽었더라

이 말 들은 진주낭군 버선발로 뛰어나와
내 이럴 줄 왜 몰랐을까 사랑 사랑 내 사랑아
화류정은 삼년이요 본댁정은 백년인데
내 이럴줄 왜 몰랐던가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어화 둥둥 내 사랑아

너는 죽어 꽃이 되고 나는 죽어 벌 나비되어
이승에서 못 다한 사랑 저승가서 피워보자
어화둥둥 내 사랑 ~

참고문헌

- 구해근(2002),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 박영희(2003), 『시대의 불꽃 김경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배지영(2002), “열아홉 노동자에서 지역운동가로: 최순영 YH노조 지부장”, 『노동사회』, 2002년 2월호.
- 서아현(2019),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의 교차적 연대: 다사건 분석을 통한 YH사건의 비판적 재구성”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유경순(2013), “1970~1980년대 노동자 저항방식: 파업투쟁과 점거투쟁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제29호.
- 장남수(2012), “광장무대에 선 70년대 민주노조: 박정희 시대 경제성장 신화의 허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전 YH 노동조합·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엮음(1984), 『YH 노동조합사』, 형성사.
- 정영훈(2017), “세상이 다 알았던 죽음 그러나 아무도 몰랐던 죽음 - 김경숙 일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https://archives.kdemo.or.kr/contents/view/181>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2008), 「YH노조 김경숙 사망관련 조작의혹 사건」. 2008. 3. 13.
- 최순영(2003), “그 때 그 자리: 70년대말 노동운동의 외침 - YH”. 『기억과 전망』 3권 0호.
- 최장집(1988),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열음사.
- 한종수(2016), “한국 현대사의 또 다른 축소판: 동일방직 여공 투쟁의 현장을 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1979), “김경숙의 사인 규명 요구 성명서”, 1979. 8. 14.
- Y·H무역노조 호소문 (1979). 1979. 4. 6.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최순영 구술자료
- KBS 인물현대사 <여공 유신을 몰아내다 YH사건 김경숙>
- <꽃다운 : YH 김경숙 30주기 기념 다큐>

토론문

유경순 한국여성노동사 연구활동가

토론문

유경순 한국여성노동사연구활동가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민주노조운동은 1970년 전태일 분신 사건의 영향으로 결성된 청계피복노조에서 시작되어, 1979년 정권을 무너뜨리는 계기인 YH 무역 여성노동자들의 신민당사투쟁을 거쳐, 1982년 원풍모방노조의 해산으로 막을 내렸다고 정리되고 있다.

1. 1960~70년대 군부독재정권기- 여성정책과 여성노동정책의 촘촘한 연결의 필요

발표문에서는 군부독재정권이 성별임금격차를 활용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추진하였다고 제기했다. 이는 자본주의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이 주로 전담하는 무급 가사노동과 같은 ‘그림자 노동’을 기반으로 노동력 재생산이 유지되는 사회이며, 성별임금격차 전략은 이것을 노동시장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라고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가족 내 성차별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적 교육자원배분 등도 여성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어 여성노동자들은 작업장구조에서 성별화된 위계구조를 경험하였다고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화 발전 전략하에 정권이 여성노동(시장)정책과 여성정책(출산정책의 대상, 가정주부 만들기 등)을 어떻게 결합해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성별임금격차 전략이 작동되는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다양한 가부장제적 기제들을 통해 그녀들의 위치(여성+ 노동자, 미혼'여성노동자들의'성정체성', 결혼퇴직제 등등)를 수용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2.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하며‘자립적 삶’을 꾸리다가…‘해방’의 지식을 만나면서…

발표문에는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하며 ‘자립적 삶’을 꾸리는 과정에서 ‘해방’의 지식을 만나면서 민주노조운동에 참여한다고 제기한다.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경험은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성정체성’과 노동과정에서 요구하는 ‘빨리빨리 일 잘하는 노동자’로서의 정체화 과정이 충돌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또, 작업장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적 통제방식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여성’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결성하는(또는 노동조건개선 등의) 실천 주체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로서의 의식변화를 중심으로 접근하였지, 기존에 형성된 ‘성 정체성’의 변화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민주노조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노동자들의 ‘성정체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접근 역시 접근되지 않고 있다. 이는 여성노동자들이 민주노조 활동과정에서 성차별에 대한 자각과 성 정체성의 변화 여부, 그리고 민주노조를 통한 여성 의제의 실천이, 어떻게 (안) 나타났는지에 대한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3. 여성 중심적 민주노조활동의 특징- 민주노조들의 공통점과 차이 문제

발표문에서는 여성 중심적 민주노조활동의 특징을 ①여성 리더십의 형성, ②소모임과 대의원 모임을 통한 조합민주주의의 실현, ③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여성 친화적 투쟁전략 등을 들고 있다.

1) 이러한 특징은 당시 정권 및 자본과 결탁하여, 노동자들을 대상화한 ‘어용노조’였던 한국노총의 노조운영과는 다른 ‘민주노조’ 활동의 중심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활동특징은 198~5년 구로공단의 민주노조운동,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활동의 특징이자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계승이라고 본다면 아래 4.에서 논의)

우선 ‘소모임 활동과 조합민주주의’의 경우, 위의 두 시기에서도 민주노조결성과 노조민주화 활동의 기반은 소모임 활동이었고, 민주노조운영의 원리는 대의제와 소모임 활동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적어도 1991~93년경까지는.)

또, ‘다양한 교육활동’의 경우, 1984~85년 구로공단의 민주노조활동에서 교육활동은 노조 내부의 교육과 노조 간 연합교육, 비공개소모임을 통한 교육 등을 진행했고,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단체의 등장 및 지노협/전노협의 등장으로 노조의 교육활동은 노조 내부의 교육과 상급단체, 노동단체, 정치그룹을 통해서도 진행됐다. 즉, 민주노조들은 시대별 상황에 따라 교육의 형식과 내용에 따른 차이가 있었지만, 다양한 주변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벌였다.

그런데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주도성은 남성노동자들에게 넘어갔는데, 이러한 민주노조활동의 특징을 ‘여성 중심적’ 민주노조운동으로 특징으로 국한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여성 중심적 민주노조 활동의 공통성과 차이에 대해

발표문에서 정리한 민주노조활동의 특징(투쟁 전술 문제는 제외)은 민주노조마다 차이는 상당히 크게 있지만, 공통적인 활동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조 간의 차이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실제 그 차이가 활동내용과 방향에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선, 여성 중심적 민주노조들은 모두 여성조합원이 다수(또는 전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노조 지도력의 경우는 남성 지도력과 여성 지도력으로 나뉘어있다. 이러한 차이는 노조활동에서 여성의제 접근의 차이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노조활동 방식에서의 차이로도 나타나는 지점을 포착해야 한다고 본다.

또, “여성 친화적 투쟁전술”의 사례로 YH무역 노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민주노조들의 투쟁전술을 살펴보면, 청계피복노조의 경우 1975년 노동교실찾기 농성투쟁, 1976년 와이셔츠업종 여성노동자들의 공임인상 파업, 1977년 노동교실사수 점거투쟁, 1981년 아프리 점거농성투쟁 등을 구사하였

다. 동일방직 노조는 1976년 공장 내 농성투쟁, 1978년 명동성당 농성투쟁 등을 구사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여성 친화적 투쟁전술’을 민주노조활동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처럼 여성 중심적 민주노조활동의 여러 특징에서 그 공통점과 개별 민주노조들의 활동 특성에 대한 구분과 그에 따른 규명은 개별 민주노조들의 구체적인 활동을 검토하여 정리될 필요가 있다.

4. 1970년 여성 중심적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 계승의 문제

발표문에서는 1970년대 여성 주도 민주노조의 활동방식은 좀 더 여성주의적으로 초점을 맞춰 이론화되어, 현재 한여노회, 여성노조를 통해 계승되고 있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승 지점 및 활동 양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 같다. 또한, 1970년대 여성 주도의 민주노조운동과, 1984-5년 구로지역의 민주노조운동과 구로동맹파업-1987년 이후 여성 중심의 민주노조활동, 현재 민주노총 소속의 여성노동자 활동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나아가 여성노조의 활동방식과 민주노총 내 여성노동자 중심 노조의 활동방식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이 필요한 거 같다. (*인간화 운동)

오늘 우리에게 김경숙은 누구인가?

정영훈 (사)한국여성연구소 소장

오늘 우리에게 김경숙은 누구인가?

정영훈 (사)한국여성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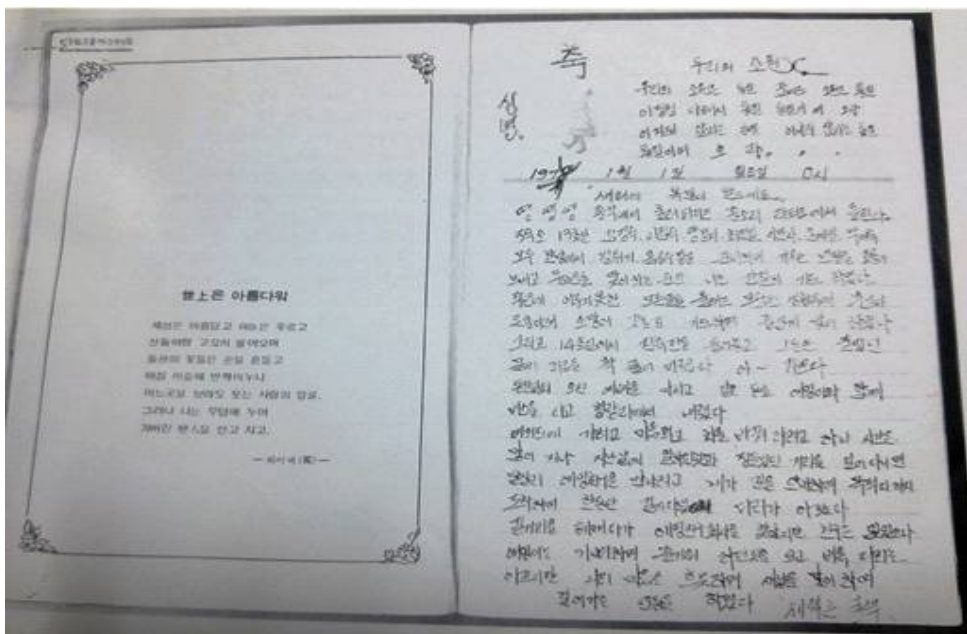
발제문에서 오늘 우리가 김경숙 열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짚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보탬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소감을 보태겠습니다.

올해 40주기가 지났습시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김경숙 열사를 시대의 틈바구니에서 온 나쁘게 죽어간 젊은 여공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은, 어떤 점에서는 '운 좋게도', 자신의 죽음이 유신이라는 강고한 시대를 마감한 대사건이 되어버린, 애처로운 여공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김경숙 열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그의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죽음에 마땅하게 바쳐질 헌사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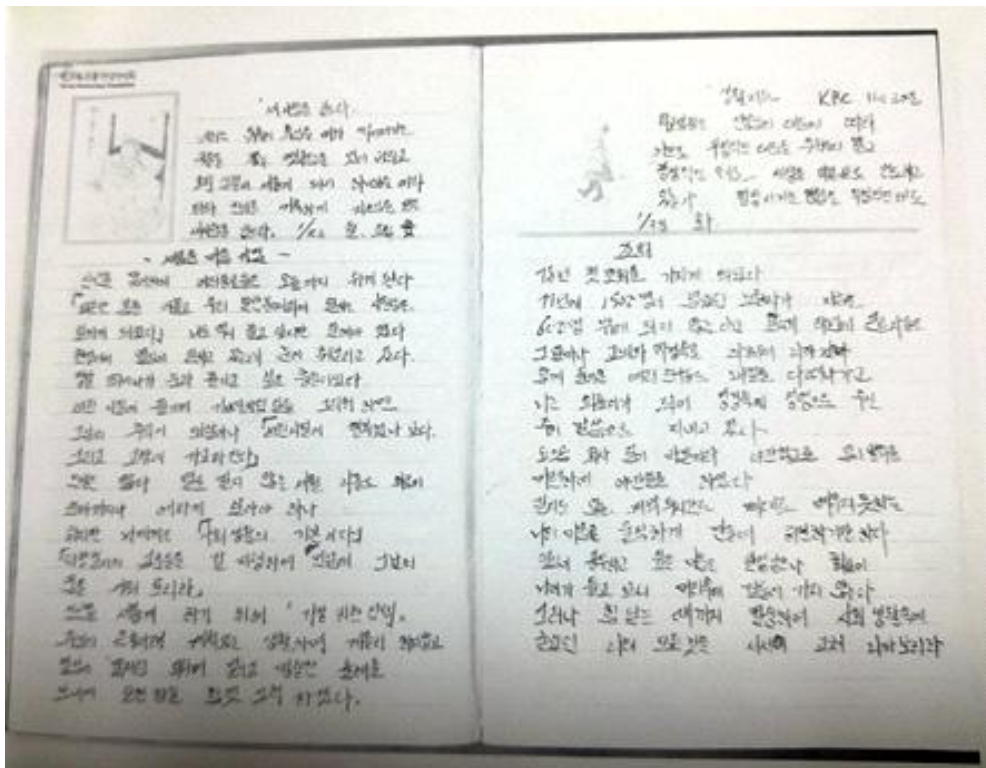
당시 신민당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토론했는지, 각자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왜 거기에 있었는지, 거기 있던 정치인들은, 기자들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도우려고 했는지, 혹은 통제하려고 했는지, 여전히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YH노동조합의 선구적인 운동가와 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날 신민당의 당직자들이 어떤 부상을 당했는지 자세하게 쓴 기사들은 많지만, 통통 부은 얼굴을 찍은 사진도 많지만, 그리고 이어지는 김영삼 총재의 제명과 정치적 부침에 관한 후속기사도 많지만, 김경숙 열사에 대한 기사는 '시신으로 발견된 자'로서 묘사되는 것 외는 없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사회는 거기서 몇 발자국이나 더 나갔을까요? 유신이라는 완강한 체제에 균열을 낸, 이라는 수사는 그의 죽음의 의미를 충분히 짚은 걸까요?

저는 김정숙 열사의 일기 중 1978년부터의 기록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기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볼 수 있었던 것도 오늘 받게문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일기 속에 나타난 김정숙 열사는 착실하고 책임감 강한, 그리고 도덕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의 노조활동과 신민당사에서의 투쟁은 우연히, 시대의 물결에 휩쓸리면서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앞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성 그리고 노동자의 조건과 그의 의식이 결합하여 일어난 필연의 결과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삶에 대한 진지하고 성찰적인 자세, 회사 폐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에 대해 사회구조적인 통찰을 얻고자 하는 진지하고 끈질긴 질문들, 그렇기에 한발씩 전진하는 그의 걸음은 세상의 시선과는 달리 주체적인 자기 결단이었고, 용감하고 성숙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모르던 사실”을 알았다는 그의 짙은 문장은 그의 삶을 혁신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의 일기를 잠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기의 맨 위 부분은 자신의 각오나 좌우명, 혹은 그날 듣거나 배운 것 중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을 짧게 기록했습니다. 1978년을 시작하는 첫 날 그가 썼던 것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가사였습니다. 그 외에도 자치회에서 결의한 것, 예를 들어, ‘새 설계 새 시각으로 한 해를 맞자, 실천 사항으로는 반성하고 계획적인 생활을 하자’와 같은 것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날 소재목을 달고 일상을 써 내려갔습니다.



고된 노동을 마치고 나서 하루를 복기하고 기록하는, 1978년을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고 가난한 어머니와 아직 고등학생에 불과한 동생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분투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를 '가장이었으되, 가장됨이 애처롭게 여겨지는 젊은 여공'으로 말했지만, 일기 속의 그는 한 번도 자신이 가장이라는 것을 연민과 함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의 고단함을 기록했지만, 그것을 자신의 삶의 밖으로 밀어낸 적이 없습니다. 가녀리다, 애처롭다는 말 속에 담긴 대상화는 세상의 시선일 뿐, '보호 속의 여성'밖에는 보지 못하는 남성가부장적 시선일 뿐, 그는 자신의 상황을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용감하게 살아낸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김경숙 열사의 삶이 복원되기 위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일기를 포함, 더 많은 작은 조각들이 그리고 더 많은 디테일들이 세상에 나와야 합니다. 마치 모자이크처럼 당장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작은 조각들일지라도 그것이

그릴 큰 그림을 상상하면서 모으고 또 모아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읽고, 다양한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리고 연구자들이 분석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을 읽는 일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노동자를, 이 여성을 역사로 만들어 가기 위해 꼭 밟아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열사의 죽음을 통한 역사화는 비장하고 엄숙하지만, 다양하고 풍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김경숙 열사의 삶을 통한 역사화는 대중의 접근이 용이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친근감을 줍니다. 풍부하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갑니다.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희생당한 여성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용감하게 자기 삶을 살아간 김경숙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박제화된 김경숙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같이 활동을 했던 동료와 목격자, 짧게 만났던 사람들까지 다양한 증언과 이후의 이야기들을 모으는 일이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김경숙 열사가 다녔던 동일교회는 아직도 있습니다. 교회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지만, 야학을 했던 자리, 야학의 학생과 교사, 김경숙 열사의 죽음 이후 야학을 둘러싼 논쟁이나 당국의 탄압, 교회의 입장 등 얼마든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야기를 낳고 또 낳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 야학에서 열사를 잠시 만났던 손호만 교사의 증언 외에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YH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뿐 아니라 스쳐지나갔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필요합니다. 저는 저 일기에 등장하는 기숙사 3숙소 13호실에 있었던 이름들, 예를 들어, 김경숙, (김경숙은 자신의 일기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점숙, 양경자, 최성일, 이민자, 박미숙, 특히 일기 속에 여러 번 등장하는 윤애영의 증언이 궁금합니다. 아주 작은 조각을 모으는 일을 더 늦어지기 전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야기는 그런 조각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요.

다음, 1970년대의 여성노동자 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대한 비판적 평가, ‘한국의 노동운동사에서 1970년대는 ‘노동운동의 전사(前史)’에 속한다. 계급적 성격을 지닌 본격적인 노동계급운동은 1980년대 중화학공업 남성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최장집, 1988; 구해근, 2002). 따라서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은 노동계급이란 집단적 주체가 형성되기 이전 민주노동조합이란 조직의 틀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 정

도로 간주한다.’ 혹은 ‘1980년대 운동과 단절된 운동으로 평가되기도 했다(김정일, 2005, 153).’에 대한 비판적 지적에 공감합니다. 말씀처럼, 1970년대 여성노동자의 운동을 전사(前史)로 보는 것은, 역사를 전체로 조망하지 않고, 중공업, 남자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려진 단편적인 평가입니다.

여기에는 일제 강점기, 미 군정기에 있었던 치열한 노동운동의 역사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평양의 고무공장 조합원들이 1930년, 1931년 대대적으로 펼쳤던 파업과 단식 동맹을 보면, 고무 공장 노동자들의 다수가 여성이었다는 사실, 1931년의 싸움이 부분적이거나 승리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이, 강주룡이라는 여성 노동자의 음모대 고공농성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1930년 평양의 고무직공 파업에서는 300명의 여성이 결사대를 조직해 공장 습격에 나서 27명이 구속된 기록이 있고, 당시 총파업에 참가한 1800명의 노동자 중 3분의 2가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의 요구에는 ‘산전산후 3주간 휴양 및 생활보장, 수유시간 자유’ 등 모성보호에 대한 요구,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성보호를 평생 노동권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1970년대의 여성노동운동을 1980년대 노동운동의 전사, 단절로 보기보다는, 노동운동이 분단과 전쟁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점이 계승되지 못했든가를 반성적으로 성찰하며 역사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왜 반복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 조선소의 85호 크레인에서 자그마치 309일을 버틴 여성 노동자 김진숙을 보면서 80년 전 강주룡이라는 여성을 떠올렸습니다. 얼마 전 틀게이트 노동자들이 경찰 진압을 막기 위해 옷을 벗은 사진을 보면서 1976년의 동일방직 여성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 여성들이 자기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의미 부여를 했는지 다시 묻고 싶어졌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역사는 반복하는가 아니면 반복하며 그래도 전진하는가? 저에게도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다만, 끊임없이 역사적 경험과 이야기들을 소환하면서 현재를 헤쳐나갈 힘으로 삼고, 덧붙여 수많은 시민과 젊은 세대에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당시 1930년을 전후한 시기에 여성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제 1조건은 임금 감하 반대, 해고 철회였습니다만, 이 시기 평양을 비롯한 서울 등에서 제기된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남성 감독의 박해, 성희롱, 구타, 강간과 같은 문제들이 있었고, 이미 1929년 여성 의제들이 근우회 강령에 명문화

되어 제정됩니다.

- ① 여성에 대한 사회적·법률적 일체 차별 철폐.
- ② 일체 봉건적 민습과 미신타파.
- ③ 조혼폐지 및 결혼의 자유.
- ④ 인신매매 및 공창폐지.
- ⑤ 농민부인의 경제적 이익옹호.
- ⑥ 부인노동의 임금차별철폐 및 산전 산후 임금 지불.
- ⑦ 부인 및 소년공의 위험노동 및 야업폐지.

(《朝鮮日報》·《東亞日報》, 1929년 7월 25일, <權友會大會에 行動綱領과 議案>).

콘트롤데이타나 원풍모방 등 70년대 말과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여성들의 노동운동, 여성 의제 제기 역시 역사적으로 적어도 10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발제문에서 지적되었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남성을 적대시했다, 분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1972년부터 동일방직에서 활동했던 노동자와 격의 없이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당시의 경험을 두고 몇 번이나 ‘남자들이 방해를 해서’ 운운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인지 관점이 없었다면, 남자에 대해 적대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몇 연구자들이 여성노동자의 진술에 대해 그런 평가를 한 것이 성인지 관점의 부재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노동자들은, 생계 부양자라는 짐(노동자 계급에서 온전히 남성 혼자만의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는 점, 여성은 부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임금노동을 해왔다는 점이 가려져 있지만 말입니다.), 성차별 사회에서 여성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이 점은 사실 운동의 변혁적 성격에 방해가 되는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남성’인 노동자에 대한 적대가 아니라 남성 노동자들을 이용하여 조합을 약화하거나 파괴하려는 시도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후의 연구에서 이러한 시각이 광범위하게

합의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YH노조의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이 노동자 개인의 생존권 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931년 평양의 고무 직공들도 개별 회사의 횡포와 노동자 탄압, 폐업에 맞서 노동자 중심의 생산 공장 설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31년 12월 평양고무공장에서 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 본위의 주를 모아 자본금 2만원을 조달하여 생산조합 평화고무공장을 세웠고, 이 공장은 생산기관의 사회화, 노동생활의 합리화, 이윤분배의 균등화를 목표로 전국 각지의 소비조합·협동조합을 주주로 모집하는 등 판로 확보에 노력했습니다. 이는 공장을 살리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된 경우로, 이후 1년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여성 주도 노조의 소규모 모임과 관련하여서, ‘여성들이 소규모의 친밀한 집단에 익숙하도록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소규모의 비공식적인 관계를 선호하는 특성이 있고, 그 안에서 활발하게 의사를 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여, 여성의 타자화된 존재 조건이 ‘공식적이고 큰’ 집단에서 배제되어온 경험을 지적한 데 동의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회화는 타자화된 존재의 결과라는 점이 명시적으로 지적되고, 또한 최근의 경향을 보면, 공식적이고 큰 조직 역시 소규모의 다양한 모임을 바탕으로 민주성, 자발성, 친밀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여, 여성 주도 조직의 이러한 특성이 2019년 오늘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보충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민주노조운동이라는 범주 밖에 있는, 대기업·수도권에서 벗어난, 여성노동자운동의 실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김경숙 열사는 계속 써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조각을 모으고, 이곳저곳에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콘텐츠화 해서 읽고 듣고 보아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재해석해야 합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2019년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김경숙 열사에게 바치는 헌사를 여전히 쓰고 있는 중입니다.

YH사건 이후 40년,
여성노동운동의 '역량'을 평가하는
시선에 대하여

서아현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YH사건 이후 40년, 여성노동운동의 '역량'을 평가하는 시선에 대하여

서아현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I. 들어가며

본 토론문은 “젠더 관점으로 본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김상숙)과 “2019년 YH 여성노동자 김경숙을 다시 생각하다”(신경아) 두 발제문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1970년대 여성노동운동에 관한 쟁점 중 여성 노동자의 역량에 관한 상반된 시각과 해석에 대한 쟁점을 소개하며, YH노조의 투쟁사례를 중심으로 필자 나름의 분석과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본 토론문에서 ‘YH사건’이라 함은 1979년 8월 YH무역의 여성 노동자가 회사의 일방적인 폐업에 반대하며 회사 기숙사와 신민당사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던 중, 11일 야당 당사에 서울시 경찰이 투입돼 이를 폭력 진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故 김경숙 열사가 사망하고 노동조합이 강제 해산된 노동쟁의사건을 뜻함을 밝혀둔다.

II. 발제문 검토

김상숙의 발제문은 1970년대 박정희 군부 정권에 의해 소위 ‘근대화’의 명목하에 주도된 국가 주도 산업화 속 여성 노동자들이 국가와 가부장제의 이중의 굴레 속에서 어떻게 유신체제가 붕괴하도록 만드는 파급효과로 이어졌는가를 여성 주도 민주노조의 활동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1970년대 제반

상황과 여성 주도의 민주노조의 특성에 대해 분석한 뒤 70년대 여성노동자 운동에 관한 쟁점 또한 제시하였다.

신경아의 발제문은 1970년대 여성 노동운동의 마지막 기점이라 할 수 있는 YH사건의 피해자 고 김경숙의 생애적 주기, 노동운동의 과정을 “여성의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또한 ‘여공’으로 함축되는 70년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제반 인식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 이를 통해 노동 억압을 토대로 구축 및 유지되었던 박정희 정부와 산업화 시대를 다시금 해석하고, 이를 종식시킨 정치적 저항운동의 한 가지 축으로 YH 여성노동자의 투쟁과 김경숙의 활동을 맥락화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김상숙과 신경아의 발제문이 제기하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1. “몰성적” 혹은 “남성 연구자 관점”의 기존 연구 비판

먼저 두 연구는 1970년대 여성 노동자 운동에 관해 기존의 연구가 “몰성적”이며 남성 연구자 관점의 시선에서 해석되어 왔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김상숙, 발제문; 신경아, 발제문).

신경아는 YH사건의 전말을 간략히 분석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1970년대 한국 노동사를 해석하는 연구의 흐름과 YH사건에 대한 해석에 대해 70년대 여성 노동자의 운동을 노동계급 주체의 형성 이전의 기초작업으로 간주하는 견해(최장집, 1988; 구해근, 2002, 신경아의 발표문 재인용)가 우세하며, YH사건의 경우 그 핵심 동력으로 기독교계 지식인들이 여성들의 “배후에서” 부추겨, 정부를 공격한 사건으로 바라보는 경향에 대해 명시한다. 종교적 “불순 단체”와 세력이 노동조합에 침투한 선동 사건으로 바라보는 박정희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 YH문제대책위원회, 1979)와 달리, 노동운동 관련 연구의 해석은 여성노동자의 움직임에 초점을 두고 있음에도, 이조차 여성노동자와 남성지식인의 연대 사건으로 보는 것(서아현, 2019)이 일반적이라고 비판하였다(신경아, 발제문).

김상숙은 기존의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대부분이 “몰성적 연구”이거나

(김금수, 1986; 장명국·이경숙, 1988; 신광영·김현희, 1996 등) 여성노동자를 “수동적 존재”로 보며 교회단체와 지식인 활동가의 역할을 과도하게 부각한 계급 및 성차별적 관점(구해근, 2002)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김상숙 발제문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같은 남성주의적 관점에 대항하는 연구의 흐름 또한 존재한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집중적으로 나타난 연구(김현미, 1999; 전순옥, 2003; 강남식, 2004; 김경일, 2005; 김무용, 2005; 김원, 2005; 유경순, 2005; 이광옥, 2005; 김상숙 발제문에서 재인용)는 이후 10년간은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이어졌다(김무용, 2011; 한명희, 2011; 곽원일, 2012; 신순애, 2012a; 신순애, 2012b; 유경순, 2011; 유경순, 2017a; 유경순, 2017b; 김원, 2019; 서아현, 2019 등; 김상숙 발제문에서 재인용).

2. 가부장제와 여성 노동자, 그리고 기억의 방식

두 연구자는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가 복합적인 측면에서 당시 한국 사회와 여성 노동자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한다.

김상숙의 경우, 보다 포괄적이며 산업적 관점에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70년대 여성 노동자의 삶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연구자는 1970년대 3선 개헌과 1972년 10월 유신체제 수립 후 박정희 정부의 성격에 대하여 “이중적 노동통제 전략”을 추구하며 노동계급의 의식화, 조직화, 정치화를 억압하며 경제성장에 동원하였던 시기라는 최장집(1985)의 견해에 덧붙여, 당시 가부장제가 경제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서 “불평등 정책이 초래할 갈등”을 막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지적하였다(김상숙 발제문 재인용). 당시의 경제성장 전략은 성별 임금 불평등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저임금 노동력으로 여성 노동자가 동원되는 과정 즉, 불평등한 임금 정책, 노동 조건을 여성 노동자가 받아들이게 만드는 “내면화”의 원인으로 가부장제가 작동한다는 점이다. 이는 ‘그림자 노동’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성별 임금격차 전략, 성별 분업과 성별 위계구조, 작업장의 젠더 통제 등 노동시장 영역에 적용된 예라 할 수 있다((미셸 바렛, 1995; 김상숙, 발제문에서 재인용).

신경아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남성의 시선이 YH사건 희생자인 김정숙의 죽음을 기억하는 방식을 검토하며 비판하였다. 김정숙에 대한 죽음을 해석하는 방식이 피상적인 수준이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며, 그 “죽음에 내포된 시대적 의미”가 명료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 예로, 김정숙의 죽음을 추모한 세 편의 남성 저자의 글을 소개한다. YH노동조합사에 실린 시인 양성우의 김정숙 추도사 “그대 못다 무른 슬픈 노래를”(형성사, 1984)와 시인 고은이 쓴 김정숙의 묘비명, 그리고 비교적 최근 자료에 해당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보관 자료 “한국 현대사의 또 다른 축소판: 동일방직 여공 투쟁의 현장을 가다”(한중수, 2016)을 예로 든다. 신경아의 해석처럼 1970년대 여성 노동자의 투쟁과 그 죽음에 대한 해석은 1차적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아가씨에 대한 “연민”의 관점에서 기억되고 있다. 이들의 기록에서 김정숙은 짓밟힌 “열아홉 순정”의 “예쁜 아가씨”이거나 (양상우), “한 떨기 백합꽃 아가씨”이고(고은) 독재자에 의해 희생된 “가녀린 여공”으로 추모된다. 이에 신경아는 여성노동자의 삶과 죽음을 “가장 단순한 차원으로 환원해버리는 남성적 시각”이라 비판하며, 민주화운동 연구 전반에 만연한 시각임을 꼬집는다. 이에 더불어 “여성 스스로의 눈”으로 YH사건과 희생자 김정숙의 죽음을 재조명할 것을 요청한다.

3. 여성노동자의 민주노조운동의 특징

김상숙이 지적하였듯이, 여성노동자운동이 반드시 민주노조 운동과 등치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유명 노조였던 한국노총 계열의 어용 노조가 여성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 설립 과정을 방해하는 남성 간부들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주요한 여성 노동운동은 “민주” 및 “자주” 노조 설립을 위한 여성 노동자 중심의 당사사적 성격을 드러낸다. 김상숙은 여성 주도의 민주노조의 특징으로 “소모임과 대의원 모임을 통한 조합민주주의 실현”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여성친화적 투쟁 전략”을 명시하였다. 즉, 1970년대 여성 노동자는 미혼의 10대~20대 여성들이 집단으로 기숙사에 거주하며 형성된 ‘유사가족’ 관계를 이루며 생활 공동체 차원을 이루며 유대감을 형성하였으며 여성 주도 민주노조들은 투쟁 방식에 있어서도 여성 친화적이고 유연한 방식을 취했다는 점이다. YH노조의 경우에도 이 같은 소그룹 중심의 여성 친화적 조

직력과 ‘대의원제’를 통한 조합원의 참여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사측의 일방적 폐업 선언 상황에서도 노동조합이 스스로 투쟁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하는 단결의 원동력이 되었다(김상숙, 발제문).

김상숙은 여성 노동자의 간부 선출과 리더십 형성 과정에 대한 흥미로운 고찰로 김원(2005)의 연구에 주목하고 있다. YH무역노조의 박태연의 구술을 인용한 해당 연구는 당시, 민주 노조에 대한 정부와 사측의 탄압이 극심한 가운데, 자본과 국가 그리고 어용노조의 방해로부터 자주 노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부장에게 모든 힘을 싣어 현장의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는 점에 주목한다(김상숙, 발제문). 즉, 여성 중심 사업장에서 어용노조의 경우 간부는 남성이 맡았던 반면, 민주 노조의 경우 여성 노동자가 직접 여성 노동자를 간부로 선출하였고, 그들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기반으로 조직이 운영되었으며 노조원 스스로 카리스마적 여성 리더십을 필요로 하였다는 것이다.

신경아는 여성의 시선에서 YH사건을 재조명하기 위해 당시 노동조합의 지부장이었던 최순영의 증언과 김경숙의 일기 그리고, 그의 마지막 증언으로 추정되는 기록 세 가지를 통해 사건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에 따르면, YH 노동조합은 당시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멘토 역할을 했던 신인령과 긴밀한 관련 속에 이뤄진 여성 노동자의 조직적 활동이며, 신민당사 투쟁의 경우 “남성 지식인들에 의해 기획되거나 이끌어진 운동이 아니”고, YH노동조합은 “강력한 자매애(sisterhood)가 투쟁의 동력”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남성 노동자의 분리주의적 투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YH노조의 투쟁과정과 동일방직의 투쟁과정의 유의할 만한 차이점으로 여성 노동조합이 남성노동자 집단이 사측의 구사대로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상을 시도하며 노동조합운동을 실천해간 사건으로 해석하였다. 즉, 동일방직의 “퐁물 사건”을 목격한 지부장 최순영을 비롯 YH노동조합의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의가 구사대로 돌아설 경우, 노노갈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남성 노동자 집단을 노동조합에 포함하지 않지만 적대시 하지도 않으면서 투쟁을 이끌어갔다는 해석이다(신경아, 발제문). 이에 대해 “남성 노동자와는 대립각을 세우되 외부 남성 집단과 연대하는 이중적 젠더 전략”(서아현, 2019)이 아닌, “민주노조운동을 탄압하는 장애요소가 될 수 있었던

남성노동자들을 회사 측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견인해 간 실천”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YH노동조합이 작업장 내 남성 노동자를 사측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역할을 했는가(신경아, 발제문)대해서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YH노동조합은 동일방직 등 여타 노조에 비해 노노갈등이 대외적으로 심한 상황은 아니었다. 또한 조합 출범 시기에는 남성 노동자에게 적대적이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노동조합은 사측과의 노사 협상을 염두에 두고 남성 노동자가 조합원이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전 YH 노동조합·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1984). 그러나, 남성 노동자가 노동조합 조직 과정을 사측에 폭로함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이 무산된 이후부터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를 사실상 배제하고 여성들로 이뤄진 노동조합을 조직할 필요성을 느낀다. 당시 노동조합 결성 과정에 대해 YH노조는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야기를 대강 마친 후 여하간 조합을 결성하려면 남자가 있어야 일을 박력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 김경숙이 ‘뭇봐’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종업원 한 명을 그날 조직부장에게 소개하였다. 그 사람의 별명이 ‘뭇봐’가 된 것은 작업장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면 눈을 치뜨고 턱을 앞으로 내밀면서 ‘뭇 봐!’하고 시비를 걸곤 했기 때문이다. 생산직 사원의 90% 이상이 여성인 작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자들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남성의 힘이 필요하다는 비주체적이고 의존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 여성 노동자들의 전반적으로 낮은 의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전 YH 노동조합·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1984: 28)

결국 “박력있게” 일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던 남성 노동자인 ‘뭇봐’가 실상은 공장장의 처남이었으며 그가 노동조합의 조직 결성시도를 “고자질”하며 노조 결성의 첫 번째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다. 그 후 주동자로 지목된 4명의 여성 노동자 김경숙, 박금순, 이옥자, 전정숙이 해고되고 최순영은 4주간 강원도 횡성군소재 하청공장으로 강제 출장 명령을 받았다(전 YH 노동조합·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1984: 28-29).

사측과 남성 노동자의 방해 작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여성 노동자를 주

축으로 한 노동조합 결성 시도가 끊이지 않자 사측은 모든 관리직 사원과 남자 직원에게 총동원령을 내려 “새벽 4시 통행 금지 해제와 동시에 출퇴근 노동자를 감시”하고 미행까지 하도록 지시하였고(앞의 책: 30), 노조 결성을 약속한 해고자 4명이 약속 장소에 가보니, “나와 있어야 할 동료는 한 사람도 없고 회사 남자 직원들만 와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앞의 책: 31) 여성 노동자들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에 있던 남성 관리자 또한 압박함으로써 YH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였다(서아현, 2019).

YH노동조합 결성의 초기 과정은 자연스럽게 노동자 계급 내부의 성적 대립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남녀 노동자가 포함된 복합노조를 결성하려 노력하였으나 그 시도가 좌절된 후 자연스럽게 여성 단일 노조가 출범한 과정은 이러한 성적 분리 과정이 여성 노동자들의 의지 또는 노력과 무관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70년대 여성 노동자 집단이 고의적으로 ‘남성 대 여성’의 구도를 형성하는 분리주의 전략을 펼쳤다가 보다는, 제조업 전반의 비숙련직 저임금 노동에 여성이 동원되고 이들을 감독하는 역할로 남성이 동원되는 성적 통제(control of sexuality) 혹은 젠더 통제(control of gender)로부터 기인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국가 주도의 이중적 노동 통제 전략에 의해 저임금 노동직에 여성이 배치되었고, 가부장적 지배 구조가 회사 내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계층적·성적 대립이 복합된 결과 나타난 긴장 구도이다. 결과적으로 70년대 제조업 현장에서 나타난 노동조합의 성 분리주의는 표면적인 성 분리주의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악한 임금과 노동 직급에 귀속됨에 따라 일어난 복합적인 갈등으로 읽어야 한다.

III. 여성노동운동의 역량에 관한 쟁점

본 장에서는 두 발제문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에 관한 쟁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토론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김상숙은 발제문 막바지에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 연구에 관한 두 가지 쟁점을 소개하였다. 첫 번째는 70년대 여성노동자 운동이 과연 “여성의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관한 상반된 견해이며, 두 번째 쟁점은 1970년대

여성노동자 운동이 ‘종교 단체’와 가지는 관계 문제에 대한 상반된 해석 또한 제시하였다.

결국 이 두 가지 쟁점은 모두 1970년대 당시 여성노동자 운동이 가지는 ‘역량’에 관한 재평가와 해석의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즉, 70년대 여성 노동자 운동이 민주노조 운동·여성의제 해결·자주적 운영 능력을 고루 갖추었는가에 대한 재평가의 문제다. 70년대 여성 노동자에 관한 연구는 여성 노동자를 지식인 집단의 꼭두각시로 폄하하거나, 민주화운동의 ‘꽃’ 또는 ‘투사’로 영웅시하는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온도차는 70년대 여성 노동자를 진영 논리와 필요에 따라 호명하고 해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여공’에 대한 시각 교정을 요청하는 신경아의 발제문에서도 70년대 여성 노동자에 관한 상반된 평가를 발견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70년대 여성 노동자 및 YH 여성노동자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이다. 해당 연구는 ‘여공’에 대한 시각 교정을 요청하며 당시 여공이 계급 사다리의 가장 밑바닥에 놓인 집단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당시 도시 빈민과 농민 그리고 반실업자 등이 적지 않은 현실 속에서 소위 ‘여공’이라고 불리는 생산직 여성 노동자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YH무역의 경우 70년대 후반 가발 수출 산업의 하락세 영향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여성들이 선망하는 직장에 가까웠고, YH 종사자들 또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들이 사실상 가부장제 안에서 고향의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부양자였고 이러한 경제적 자부심과 책임감이 YH노조의 강력한 결성력의 동인이었다는 점은 기존의 여성 노동자를 “가녀린” 또는 “불쌍한” 그리고 “깃뺏힌” 하위 주체로 그려온 남성적 시선과 대조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70년대 여성노동자 운동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대한 기대, 가부장제에 대항하는 여성 주체, 노동 해방을 위한 운동 주체에 대한 기대를 받으며 그 기준에 부합하거나 미달하는 것으로 제각각의 평가를 받아왔다. 어째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이처럼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여성적 관점의 해석과 남성적 관점의 해석의 차이일까?

이러한 엇갈린 평가가 나타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필자는 두 가

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싶다. 첫 번째, 여성 노동자운동에 대한 ‘과도한 기대’이다. 즉, 70년대의 사회 운동 주체 중에서도 유독 여성 노동자 집단에 관해서만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그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여성과 노동자가 사회운동에 참여하기에 절대적 자원이 부족했던 70년대에 여성이며 노동자였던 제조업 생산직 종사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을 이끌었기를 기대하는 요구가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처럼 다소 과도한 기대는 오히려 70년대 여성노동자 운동의 주체성 및 자주성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게 만들기 쉽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여성노동자운동을 둘러싼 여타 집단과의 관계성에 대한 평가에서 민감하게 나타난다. 즉, 여성노동자운동이 결국 스스로의 역량으로 노동자 운동과 여성 운동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모두 집단 내부의 동인과 필요에 의해 이끌어 나갔는가 혹은 여성노동자는 주요한 행위 집단이기는 했으나 소위 ‘배후’라 할 수 있는 여타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인가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드러난다. 특히 여성노동자 집단에게 영향을 주었던 기독교계 인사 및 남성지식인 계층의 영향력 또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기 십상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 주체는 대학생 지식인 집단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비교적 뚜렷하게 평가되는 데에 반해, 1970년대의 경우는 여러 계층 및 집단이 상호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민주화 투쟁을 이어나갔다는 점 또한 이 같은 쟁점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1970년대의 경우 노동자, 학생, 기독교 지식인 등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가운데에 노동 쟁의를 중심으로 한 외부 집단의 지원과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울력을 바탕으로 반독재 투쟁이 이어져왔다. 그 역사를 재평가하는 데에 있어 어떤 집단의 역량을 주요한 것으로 평가하느냐는 해석 주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앞서 두 발제문에서 공통적으로 밝혔듯이, YH노조는 크리스찬아카데미 등 사회 운동 집단의 지원과 상호 연대 속에서 노동조합의 결속력을 다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으로 YH노조를 지원하던 대다수의 지식인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외부의 기독교계 지식인과의 연대를

통해 투쟁을 외부의 사회운동으로 확대하였으며, 기독교 민주화운동계열의 인사들이 가교역할을 하며 야당이었던 신민당과 함께 노동운동을 정치투쟁화 하였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연쇄적으로 일어난 투쟁 확대 과정이 과연 ‘연대’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신경아(발제문)의 문제제기는 적절한 질문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최순영 지부장을 비롯한 YH노조 또한 투쟁의 대상이 비단 YH무역으로 국한하지 않았으며, 이를 유신체제와 박정희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정치적 문제 제기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연대 투쟁은 유신체제 타도를 위한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이해관계를 공유한 정치적 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서아현, 2019).

요컨대,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과 이에 대한 해석에 관한 연구는 여성노동운동의 ‘역량’에 관한 기대와 1970년대 사회운동의 중심세력을 가려내고자 하는 요구 속에 저다마 다른 모습으로 호명되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은 운동에 필요한 경제적·사회적·인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상황에서 여러 계층 및 사회 운동집단과 상호작용을 통해 점차 구축되었으며, 이러한 운동성과 각 집단의 네트워크가 하나의 투쟁에 집결되어 폭발적으로 일어난 투쟁이 YH노조의 투쟁 사례였다. 투쟁의 확장 과정에서 여러 세력과 연합하는 과정에서 YH노조의 투쟁은 유신체제 붕괴의 트리거 역할을 담당하였다.

IV. 마치며

그렇다면 70년대 여성 노동자의 투쟁 과정에 대한 엇갈리는 시선은 미완의 과제 혹은 고루한 논쟁으로 남겨질 것인가?

70년대 여성노동자의 투쟁을 소환해내고 오늘날 이에 대한 평가를 또다시 재해석해야 할 이유는 YH노동조합의 투쟁을 비롯한 70년대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비단 70년대 여성노동운동 과정의 생태적 한계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성과 여성의 노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의 상반된 시선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여성과 여성의 노동 그리고 여

성노동운동에 관한 엇갈리는 평가와 시선은 비단 70년대에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79년 YH사건 발발과 김경숙 노동자의 사망 후 11년이 지난 1990년 일명 ‘아줌마 노조’로 묘사되었던 ‘피코 노조’의 투쟁이 일어났다. 국내의 제조업 수출기업에서 다국적 미국의 기업으로 자본의 형태는 바뀌었고, 이에 따라 투쟁의 과정도 더욱 국경의 경계를 넘나들며 일어났지만, 여성노동자운동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들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줌마 노조’로 묘사하거나 다국적 기업에 맞서 싸우는 반미주의 영웅으로 묘사했다(김현미, 2005). 이후 그들의 딸 세대라 할 수 있는 기륭전자의 여성노동자의 투쟁 그리고 최근 발생한 톨게이트 수납원 여성노동자의 투쟁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필요에 따라 진영의 논리와 필요에 따라 호명되고 평가 되는 여성 노동자운동의 현실은 70년대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다.

YH사건 발발 후 40여년이 흐르는 동안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오늘날 여성 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나아졌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여성에 대한 ‘연민’의 수준이 아닌 ‘혐오’의 시선에 맞서야 하는 여성 노동자의 현실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청되는 이유다.

참고문헌

- 강남식(2004), 「70년대 여성노동자의 정체성 형성과 노동운동」, 『산업노동연구』, 제10권 제2호.
- 강인순(2001), 「1980년 이후 한국여성노동자운동: 평가와 과제」, 『인문논총』 14.
- 곽원일(2012), 「한국교회와 도시산업선교에 대한 구술사 연구 : 1960, 70년대 여성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구해근, 신광영 옮김(2002),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
- 김경일(2005), 「1970년대 민주노동운동의 쟁점- 여성과 지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2015년 11월호.
- 김경희(2005), 「1970년대 노동 : 여성 노동자의 작업장 생활과 성별분업 - 1970년대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11권.
- 김금수(1996), 『한국노동문제의 상황과 인식』, 풀.
- 김남일(2010), 『원풍모방 노동운동사』, 삶이보이는창.
- 김무용(2005), 「1970년대 동일방직 노동운동의 조합민주주의와 젠더정치」, 『1970년대 민중운동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상숙(2019), “젠더 관점으로 본 19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 김경숙 열사 사망 40주기 심포지엄 발제문
- 김 원(2005), 『여공 1970, 그녀들의 反 역사』, 이매진.
- 김 원(2019), 「1979년, 그녀들의 선택 - YH노동조합 신민당사 농성」, 『역사비평』 2019년 8월호.
- 김현미(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변역』. 서울: 또하나의문화.
- 김현미(1999), 「한국노동운동의 담론 분석을 통해 본 성적 재현의 정치학」, 『열린지성』 제6호.
- 미셸 바렛, 신현욱·장미경·정은주 편역(1995), 『페미니즘과 계급정치학』 (Feminism and class politics), 여성사.
- 서아현(2019),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의 교차적 연대: 다사건 분석을 통한 YH사건의 비판적 재구성”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신경아(2019), “2019년 YH 여성노동자 김경숙을 다시 생각하다”, 한국여성노동자회 김경숙 열사 사망 40주기 심포지엄 발제문

- 신순애(2012a), 「13살 여공의 삶」,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순애(2012b), 「1960~70년대 한 여성 노동자의 삶」, 『내일을 여는 역사』 48호.
- 유경순(2005), 「청계피복노조의 활동과 특징」, 『1970년대 민중운동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유경순(2017a), 「젠더관계에서 본 1970년대 민주노조의 유형별 특성」, 『기억과 전망』 36호.
- 유경순(2017b), 「노동조합의 지도력과 젠더정치 청계피복노조의 여성지도력 형성 시도와 좌절」
- 이광욱(2005), 「1970년대 청계피복노동조합의 소모임 활동과 노동자의식의 변화」, 『역사연구』 제15호.
- 전순옥(2004),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 한겨레신문사.
- 전 YH 노동조합,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1984. 『YH노동조합사』. 서울: 형성사.
- 최장집(1988),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열음사.
- 한명희(2011), 「70년대 민주노조운동에서의 여성과제 : 콘트롤데이타 노동조합 여성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70년대의 김경숙, 40년을 넘어오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70년대의 김경숙, 40년을 넘어오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1. 들어가며

김경숙은 흔한 이름이다.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김경숙은 YH의 김경숙이지만 네00검색을 하면 스무명이 나온다. 교수, 탈렌트, 공예가 등 다양한 이들이 나온다. 검색되지 않는 김경숙은 아마도 더 많을 것이다. 제 3회 김경숙상 시상식이 있던 2016년 가을 이화여대 학생들이 “고구마를 캐다보니 무령왕릉이 나왔다.”라고 했던 전설을 현실로 만든 이화여대의 고구마 ‘정유라 입학비리’의 주역이던 체육대학 학장 이름도 김경숙이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에는 또 다른 유명한 김경숙이 있다. 88cc경기보조원 투쟁의 시작이었던 1999년 43세 성차별 정년 철폐투쟁의 주역이었던 여성노동자의 이름도 김경숙이다. 골프장 직원의 정년이 55세인데 모두가 여성인 캐디의 정년을 갑자기 43세로 만들어 해고시키고자 하는 골프장에 대해 ‘여성’자가 붙은 모든 곳을 찾아다녔고 한여노회와 전국여성노조를 만나 43세 정년을 분쇄하고 노동조합분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현역이 아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인 경기보조원의 권리를 찾는 일을 끊이지 않고 한다. 30년이 넘는 골프장 캐디 경력과 노동조합 활동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나오면 상담하고 방송사와 인터뷰를 사양하지 않고 있다. 제1회 김경숙상의 수상자는 바로 88cc분회였다. 김경숙상의 첫 번째 주인공이 김경숙 열사 20주기에 만들어진 전국여성노동조합의 88cc분회라는 사실이 참 인상적이었다. 그 역사 속에는 성차별 해고와 노동조합 탄압과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법의 굴레를 이기고 열심히 동료와 함께 살아온 김경숙이 있었

다. 이처럼 세 명의 김경숙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서로 몰랐을 사람이고 삶은 이토록 다르다.

오늘 심포지엄의 제목처럼 기억에서 역사로 현재로 삶은 흐른다. 우리주변의 김경숙은 20년 전에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로 우리에게 왔다. 2019년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인가. 또 2029년에는 2031년에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 오늘의 토론회가 김경숙이 함께 살았던 70년대의 치열한 여성노동운동의 경험을 제대로 해석하고 미래를 찾아가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 또 여성노동운동의 시각으로 소중한 발제를 해주신 두 분의 발제자에게 감사드린다.

2. 쟁점과 관련하여

1)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여성의제 실현문제에 대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할 때 가장 일차적 욕구는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이다. 다만 노동조건 개선에 여성의제가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와 실제로 실효성있게 추진되는가이다. 발제에서는 생리휴가, 수유시간확보, 임금차별 등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고 여성의제의 선택과 실현에 있어 성별 지도력과 성별구성에 따른 차이 등을 소개했다. 이 중 성별 지도력과 지도부의 차별 감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87년에 남성이 많은 중공업 노동조합에서 임금의 심각한 남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여성임금을 더 많이 올리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남성조합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설득하고 밀어붙여서 진행하였다. 또 최근 ○○대학의 생협을 조직했던 경험에서 남성이 10년 동안 지도부를 하면서 전일제 남성에게만 유리한 임금체계를 만들어내어 이에 반발한 여성들이 집단 탈퇴 후 새로 여성지도력 중심으로 재편한 후 맨 먼저 임금체계를 바꾸어 냈던 경험이 있다. 임금은 중요한 여성의제이다. 또 20대 여성 중심이라 여성의제가 우선되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시대적 한계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2000년에 d중공업의 파견직 여사원을 직접 고용하여 노동조합으로 조직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을 묻자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이라는 대답을 기대했으나 조합원들은 결혼해도 다닐 수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던 사례가 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의 학교비정규직 교섭과정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은 별로 쟁점이 되지 않는 편인데 단체협약 체결 후 실제 조합원들이 실감하는

단체협약의 효과는 지대하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처럼 여성의제는 시대에 따라 지도부의 성별 구성, 젠더의식에 따라 구성되며 확립된다.

2) 남성지식인과 종교단체와의 관계

70-80년대라는 엄혹한 상황에서 종교단체의 역할은 중요했다. 노동조합을 하면 빨갱이로 취급받는 상황에서 종교단체의 역할이 필요했고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87년 이전까지는 안전하게 교육받고 모임을 할 수 있는 보호된 장소가 그나마 종교단체였던 것은 현실이다.

김경숙의 경우 동일교회의 경험이 신앙이라는 종교적 효과만이 아니라 노동의식을 가지게 되는 경험이 되었고 최순영의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경험 또한 노동의식을 성장시키는 경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으로 보아 70년대의 여성노동자들은 종교단체의 지원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주적 존재였다고 생각된다. 다만 신앙이나 인간관계의 깊음이 내부의 갈등을 빚게 되는 d 노조의 경험도 있는데 이는 87년이후 정파갈등이 노동조합에 투영된 현재의 민주노조 운동의 맥락과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20대의 여성들이 3-40대의 남성보다 덜 자주적일 것이라는 것은 편견이 아닐까.

다만 현실의 경험에서 고민이 있다. 예를 들면 학교비정규직의 조합원은 90% 이상이 여성이며 공식적인 지도력 또한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정책담당이나 교섭담당으로 남성들이 들어와 있다. 형식적으로는 고용직 상근자이지만 실제로는 교섭을 담당하고 투쟁을 결정하는데 주된 영향을 미친다. 바깥의 남성지식인과 종교단체보다 더 영향력이 있을 때 이 관계를 어찌 보아야 할 것인가?

3) 남성지도력과의 갈등과 공존의 문제

민주노조운동으로만 명명되었던 70년대의 치열한 여성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을 젠더관점으로 복원한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단순히 민주나 어용이냐가 아니라 치열했던 투쟁 중심이 아니라 여성노동자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역할 했는가가 더욱 조명되어야 한다. 특히 대다수 여성이 구성원이었던 70년대 노조운동에서 최초로 여성지부장으로의 지도부교체가 민주노조로 거듭나는 과정이었던 동일방직노조로부터 YH, 콘트롤데이터 노조 등의

역사는 소중하다. 물론 남녀가 함께 민주노조를 건설했던 원풍모방의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여성리더십의 등장과 민주노조로의 변화가 일치하는 모양새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남성노동자와의 공생 - 남성지도력과 공존의 문제는 쉽지 않다. 성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공존을 이야기하기 힘들다. 소수의 남성이 권력을 쥐고 특혜를 누리는 형태로 노동조합을 운영해온 곳에서 공존을 여성지도력의 한계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필자도 87년 노동조합을 만들 때 남성노동자가 구사대로 돌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위원장을 남성으로 옹립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남성들이 주로 관리직이거나 관리직의 고향후배로 구성되어 있던 현실에서 노동조합을 함께 만들었던 부위원장이 창고에서 린치를 당하고 사라진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의식적인 노동운동가이거나 위계에서 남성이 우위에 있지 않을 경우 공존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다. 또 의식적 활동가라 하더라도 남성지도력이 가지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전국여성노조는 대학교 청소노동자나 학교비정규직 등 여성노동자가 다수인 직종을 주로 조직하는데 그럴 경우 이해를 같이 하는 남성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편이나 최종 리더십을 주지는 않는다. 역차별이라는 반발도 있지만 여성노조에서라도 여성리더십을 억지로라도 세우고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 작업현장에서의 성별위계구조

부분적이지만 봉제와 전자로 나누어지는 인구학적 구성에 대해 흥미가 있다. 특히 작업현장에서의 성별위계구조에 주목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현재의 산업별 구성에서의 남성위계구조와 노동조합과의 연관성 등이 좀더 연구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현재 여성노동자의 구성은 많이 바뀌어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함께 모여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또 학력도 높아져서 그동안 가장 학력이 낮은 고령노동자였던 청소노동자들도 세대가 변함에 따라 고졸이상의 구성이 많아진 정도이다. 새로운 영역의 조직화 방식이 필요하다. 산업은 또한 노동자의 생활을 바꾼다. 최근 웹기반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여성들이 조직되어 있다. 가족을 돌보는 돌봄 노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직업의 특성에서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은 버겁다.

3. 맺음말

김경숙 묘비의 ‘한떨기 백합꽃’이라든가 ‘가녀린 여공’으로 명명해온 남성중심의 묘사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참 좋았다. 김경숙은 70년대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가장 노릇을 했던 수많은 여성노동자 중의 하나였다. 또한 노동조합을 만나 자신의 생각을 키우고 역할 높여내며 열심히 살아낸 간부였다. 또 신민당사 농성의 힘겨운 과정에서 동료들에게 말만이 아니라 노래를 불러주었던 분위기메이커였다. 또 대량 해고된 동일방직 조합원과의 만남에서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다짐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여성노동자는 전진한다. 김경숙이 바꾸고 싶었던 세상의 모습을 김경숙이 함께 하고 싶어 했던 동료들과 함께 흔하지만 흔하지 않은 모습으로 수많은 김경숙으로 전진한다.

